

WEBVTT

00:00:10.033 --> 00:00:11.613

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
00:00:11.713 --> 00:00:12.866

김태동 선생입니다.

00:00:12.966 --> 00:00:15.808

오늘 이 시간에는
작문의 절차하고요.

00:00:15.908 --> 00:00:20.695

그다음 마지막 실전 문제 마지막까지
이렇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

00:00:20.795 --> 00:00:24.360

작문이라고 하면 글쓰기의
절차 5가지를 객관식으로

00:00:24.460 --> 00:00:26.203

문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0:26.303 --> 00:00:31.780

이 작문하는 게 5가지
글쓰기의 절차 중에

00:00:31.880 --> 00:00:34.802

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
고쳐쓰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.

00:00:34.902 --> 00:00:37.303

고쳐쓰기가 문법적인 요소가 들어가서

00:00:37.403 --> 00:00:39.129

여러분이 조금 어렵게
느낄 수 있습니다.

00:00:39.229 --> 00:00:40.736

우선 절차부터 확인하고요.

00:00:40.836 --> 00:00:42.049

그다음 들어가 볼게요.

00:00:42.149 --> 00:00:45.738

5가지인데 계획하기, 내용
생성하기, 조직하기, 표현하기,

00:00:45.838 --> 00:00:46.707

고쳐쓰기입니다.

00:00:46.807 --> 00:00:50.802

쉽게 얘기하면 계획하는 건
뭐냐면 주제를 정하는 거죠.

00:00:50.902 --> 00:00:52.946

그다음 내용 생성하기는
소재를 찾는 겁니다.

00:00:53.046 --> 00:00:56.198

그다음에 조직하기는 내용
구조도를 짜는 건데,

00:00:56.298 --> 00:00:58.307

개요표를 짜는 거라고
생각하시면 되고.

00:00:58.407 --> 00:01:00.149

표현하기는 직접 글을 쓰는 거고요.

00:01:00.249 --> 00:01:01.470

고쳐 쓰는 건 다시 하는 거죠.

00:01:01.570 --> 00:01:04.751

여기에서 회귀적이라고 하는 게
무슨 뜻이냐면, 애들아.

00:01:04.851 --> 00:01:06.889

예를 들어 고쳐쓰기 하다가
뭔가 잘못된 것 같아.

00:01:06.989 --> 00:01:09.231

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
수 있다는 뜻입니다.

00:01:09.331 --> 00:01:11.662

상호 의존적이라고 하면
조직하기는 당연히

00:01:11.762 --> 00:01:16.426

앞에 내용 생성하기에 의해서
조직하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

00:01:16.526 --> 00:01:18.829

상호 의존적이다 이렇게
얘기할 수 있는 거죠.

00:01:18.929 --> 00:01:21.515

첫 번째 글쓰기의
계획부터 한번 볼까요?

00:01:21.615 --> 00:01:25.314

계획은 글을 쓰기 위해서 주제
및 예상 독자를 선정하고

00:01:25.414 --> 00:01:28.218

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한
편의 글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

00:01:28.318 --> 00:01:30.339

계획하는 게 글쓰기의 계획입니다.

00:01:30.439 --> 00:01:32.746

글의 목적과 주제를 정하는 건데요.

00:01:32.846 --> 00:01:36.558

예상 독자 분석하고, 자료 수집하고,
내용 선정하고, 내용 조직하기.

00:01:36.658 --> 00:01:41.021

이게 바로 전체적인 글쓰기의

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1:41.121 --> 00:01:44.076

내용 생성하기 방법은
소재를 찾는 방법인데요.

00:01:44.176 --> 00:01:46.826

제목과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
창의적이며 체계적으로

00:01:46.926 --> 00:01:49.339

사고를 전개하는 게 바로
내용 생성하기인데요.

00:01:49.439 --> 00:01:52.469

작문 상황과 작문 계획에 맞게
글의 중심 내용을 조정하고

00:01:52.569 --> 00:01:56.182

구체화하는 게 바로 내용
생성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1:56.282 --> 00:01:59.199

작문 상황을 고려하는 건
글의 목적이 뭐냐?

00:01:59.299 --> 00:02:01.215

그다음에 글의 유형을
어떻게 할 거냐.

00:02:01.315 --> 00:02:02.995

설명문으로 할 거냐,
논설문으로 할 거냐.

00:02:03.095 --> 00:02:06.474

그다음에 주제가 뭐고, 예상
독자는 바로 누구냐에 따라서

00:02:06.574 --> 00:02:08.718

달라지는 게 바로 작문 상황입니다.

00:02:08.818 --> 00:02:13.610

작문 계획 고려할 때는 전체적인
내용, 주제, 구조, 전개 등을

00:02:13.710 --> 00:02:16.364

고려해서 통일성 있는 글을
쓰는 게 중요한데요.

00:02:16.464 --> 00:02:19.767

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
주제가 긴밀하게 연결됐을 때

00:02:19.867 --> 00:02:22.149

그걸 통일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

00:02:22.249 --> 00:02:25.556

작문 계획과 생성한 내용을 비교,
검토하여 수정, 보완을 해야 되고.

00:02:25.656 --> 00:02:29.094

그러니까 계획에 맞게 생성된
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죠.

00:02:29.194 --> 00:02:33.539
소재가 주제에 어긋나면 당연히 그
소재는 빼야 되는 게 맞잖아요.

00:02:33.639 --> 00:02:36.891
작문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
활용해서 중심 내용을 뒷받침할

00:02:36.991 --> 00:02:40.848
세부 내용을 생성하는 게
바로 내용 생성하기입니다.

00:02:40.948 --> 00:02:43.670
생성된 내용을 검토해서
작문 계획을 조정하고

00:02:43.770 --> 00:02:47.518
다시 구체화시키는 과정이라고
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2:47.618 --> 00:02:48.767
내용 조직, 전개인데.

00:02:48.867 --> 00:02:51.768
일반적인 내용 조직, 전개는
처음, 중간, 끝의 과정이에요.

00:02:51.868 --> 00:02:53.787
처음, 중간, 끝이라고 하는 건데.

00:02:53.887 --> 00:02:57.134
처음에는 당연히 글을 쓰는 이유나
목적 이런 것들이 제시되겠죠.

00:02:57.234 --> 00:02:58.960
문제 제기나 이런
것도 들어가겠고요.

00:02:59.060 --> 00:03:01.640
중간은 중심 내용과 뒷받침
내용을 제시하면서

00:03:01.740 --> 00:03:04.966
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
쭉 이렇게 전개해 나간다고

00:03:05.066 --> 00:03:06.391
생각하시면 되겠고.

00:03:06.491 --> 00:03:10.634
끝부분은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주제를
강조하는 게 바로 끝부분입니다.

00:03:10.734 --> 00:03:13.700
가장 중요한 게 이제 통일성과
응집성이라고 하는 건데.

00:03:13.800 --> 00:03:16.018

통일성은 아까 제가
말씀드렸던 것처럼

00:03:16.118 --> 00:03:19.679
주제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
바로 통일성이라고 얘기하죠.

00:03:19.779 --> 00:03:23.574
응집성은 뭐냐면 글이 긴밀하게
연결된다는 게 바로 응집성입니다.

00:03:23.674 --> 00:03:26.945
내용을 조직하고 전개하는
과정에서 통일성과 응집성의

00:03:27.045 --> 00:03:29.184
원리에 따라 내용을 구성합니다.

00:03:29.284 --> 00:03:33.046
통일성은 글의 여러 내용이 하나의
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될 때

00:03:33.146 --> 00:03:34.866
그걸 통일적이라고 합니다.

00:03:34.966 --> 00:03:36.857
주제라는 말이 꼭 중요하죠.

00:03:36.957 --> 00:03:39.941
응집성은 문장과 문장, 문단과
문단 사이가 내용적, 문법적으로

00:03:40.041 --> 00:03:42.030
긴밀하게 연결되는 건데.

00:03:42.130 --> 00:03:44.776
지시어나 접속어의 사용이
올바로 됐을 때

00:03:44.876 --> 00:03:47.298
그걸 바로 응집성이라고 얘기합니다.

00:03:47.398 --> 00:03:49.525
통일성과 응집성이죠.

00:03:49.625 --> 00:03:53.533
내용 전개의 일반적인 원리는
뭐냐면 세 가지인데요.

00:03:53.633 --> 00:03:56.761
시간순서, 공간 순서,
논리적 순서의 원리인데.

00:03:56.861 --> 00:04:00.458
시간순서는 말 그대로 시간의
흐름, 사건 전후 관계를 따져서

00:04:00.558 --> 00:04:01.922
내용을 전개하는 거고요.

00:04:02.022 --> 00:04:06.598

공간 순서는 뭐냐면 장소 이동이나
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

00:04:06.698 --> 00:04:08.312
구성하는 원리입니다.

00:04:08.412 --> 00:04:10.321
근원이라고 하는 건 가깝고
멀고 이런 거죠.

00:04:10.421 --> 00:04:11.397
좌우도 마찬가지로.

00:04:11.497 --> 00:04:13.132
결국 장소가 이동된다는 겁니다.

00:04:13.232 --> 00:04:15.615
논리적 순서의 원리는
연역법이나 귀납법.

00:04:15.715 --> 00:04:19.128
연역법은 뭐냐면 중심 내용이
앞에 나오는 거고,

00:04:19.228 --> 00:04:23.807
그다음에 부수적 내용이 뒤에 나올
때 연역적이라고 얘기하고요.

00:04:23.907 --> 00:04:27.539
귀납법은 부수적인 내용이 앞에 나오고
중심 내용이 뒤에 나왔을 때

00:04:27.639 --> 00:04:29.423
그걸 귀납법이라고 얘기하죠.

00:04:29.523 --> 00:04:32.119
일반적 전체와 구체적 사실
사이의 배열을 고려한 게

00:04:32.219 --> 00:04:34.627
바로 논리적 순서입니다.

00:04:34.727 --> 00:04:40.217
표현하기는 뭐냐면 생성한 내용을
조직 및 전개 계획에 따라

00:04:40.317 --> 00:04:41.441
초고로 작성하는 거.

00:04:41.541 --> 00:04:43.681
처음에 글을 써보는 게
바로 표현하기죠.

00:04:43.781 --> 00:04:46.629
작문 맥락과 내용에 적합한
어휘와 문장을 선택하여

00:04:46.729 --> 00:04:50.278
어법에 맞게 표현하는 게
바로 표현하기가 되겠죠.

00:04:50.378 --> 00:04:53.402
작문 맥락과 내용을 고려해서 여러
가지 표현 기법 활용하는 건데.

00:04:53.502 --> 00:04:57.101
옛날 문제는 뭐였냐면 조건을
주고 글을 실제로 써 보라.

00:04:57.201 --> 00:05:00.179
그 조건이 바로 뭐였냐면
의인법이 사용되도록 할 것,

00:05:00.279 --> 00:05:03.115
대구법이 사용되도록 할 것,
이런 조건들이 있었어요.

00:05:03.215 --> 00:05:05.613
내용을 효과적이고
개성적인 문체로 표현하고

00:05:05.713 --> 00:05:08.163
그림이나 도표 활용할 수 있겠죠.

00:05:08.263 --> 00:05:11.504
필요에 따라 작문의 내용, 조직,
전개 방법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.

00:05:11.604 --> 00:05:13.969
언제든지 이게 회귀할 수
있다 그랬으니까요.

00:05:14.069 --> 00:05:16.727
앞부분으로 언제든지
갈 수 있는 거죠.

00:05:16.827 --> 00:05:21.243
여러분, 고쳐쓰기는 글 수준,
문단 수준, 문장 수준인데.

00:05:21.343 --> 00:05:24.840
순서대로 하면 글 수준부터
먼저 고쳐쓰기를 합니다.

00:05:24.940 --> 00:05:25.931
무슨 이야기냐?

00:05:26.031 --> 00:05:27.724
문장을 다 고쳤어요.

00:05:27.824 --> 00:05:32.031
그런데 나중에 글 전체 보니까
주체가 마음에 안 들어.

00:05:32.131 --> 00:05:33.307
그러면 다시 써야 되잖아요.

00:05:33.407 --> 00:05:36.250
그러니까 글 전체 수준에서
먼저 한다는 겁니다.

00:05:36.350 --> 00:05:39.957

글 전체를 검토한다는 것은 주제와 글 전체 내용의 합치 여부,

00:05:40.057 --> 00:05:44.159
제재와 주제의 관련성, 글 전체의 긴밀성 등을 살피는 걸 말하는데.

00:05:44.259 --> 00:05:46.696
또한 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,

00:05:46.796 --> 00:05:49.928
부족한 부분이나 비약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확인하는 게

00:05:50.028 --> 00:05:52.062
바로 글 수준에서 고쳐 쓰는 겁니다.

00:05:52.162 --> 00:05:54.477
글 수준에서 고쳐쓰기가 제일 먼저입니다.

00:05:54.577 --> 00:05:57.583
문단 수준은 뭐냐면, 문단 수준에서 고쳐 쓸 때는

00:05:57.683 --> 00:06:02.080
각각의 문단이 구성 원리에 맞는지, 각 문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는지,

00:06:02.180 --> 00:06:04.761
각 문단이 글 전체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

00:06:04.861 --> 00:06:08.996
고려하는 게 바로 문단 수준에서 고쳐쓰기를 하는 겁니다.

00:06:09.096 --> 00:06:12.653
문장 수준은 문장 연결,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.

00:06:12.753 --> 00:06:13.951
주어, 서술어 호응 관계.

00:06:14.051 --> 00:06:15.457
우리가 문법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.

00:06:15.557 --> 00:06:18.926
단어의 적절성, 맞춤법, 띄어쓰기, 이중 피동 이런 것들이 있어요.

00:06:19.026 --> 00:06:21.703
그러니까 문법적인 요소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하는 게

00:06:21.803 --> 00:06:25.753
바로 문장 수준에서 고쳐쓰기를 하는 거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6:25.853 --> 00:06:29.846

보면 제목, 목적, 예상
독자가 잘못됐는지.

00:06:29.946 --> 00:06:31.790
다시 수정할 건지 확인하는 거고.

00:06:31.890 --> 00:06:34.032
문단의 이동, 삭제,
대체, 첨가, 확장.

00:06:34.132 --> 00:06:37.029
문단을 어떻게 순서를 바꿀
건지 고민하는 거고.

00:06:37.129 --> 00:06:38.475
문장 똑같습니다.

00:06:38.575 --> 00:06:39.856
구나 절 수준 똑같고요.

00:06:39.956 --> 00:06:41.456
단어가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거.

00:06:41.556 --> 00:06:45.866
이게 바로 순서가 이렇게 전개된다는
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.

00:06:45.966 --> 00:06:46.985
넘어갈까요?

00:06:47.085 --> 00:06:48.538
문제로 개념 확인 보겠습니다.

00:06:48.638 --> 00:06:49.947
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봐라.

00:06:50.047 --> 00:06:58.097
뭐냐면 계획하기, 내용 생성하기,
내용 조직하기, 표현하기, 고쳐쓰기

00:06:58.197 --> 00:06:59.304
이렇게 되겠죠.

00:06:59.404 --> 00:07:02.061
내용을 조직하고 전개할 때에는
통일성과 응집성이겠죠.

00:07:02.161 --> 00:07:05.464
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는지를
판단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

00:07:05.564 --> 00:07:07.395
응집성을 고려하는 겁니다.

00:07:07.495 --> 00:07:11.417
문단의 위치나 문장 구조를
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.

00:07:11.517 --> 00:07:12.361
적절하죠.

00:07:12.461 --> 00:07:15.353

당연히 고쳐야 될 거는 다
고치는 게 맞습니다.

00:07:15.453 --> 00:07:17.899

작문 절차 한번 들어가서요.

00:07:17.999 --> 00:07:19.741

유형 연습 한번 들어가 볼게요.

00:07:19.841 --> 00:07:22.997

첫 번째, 문제를
한번 확인하겠습니다.

00:07:23.097 --> 00:07:27.293

1번, (나)를 고려했을 때 (가)의
㉠~㉡에 대한 조정 방안으로

00:07:27.393 --> 00:07:28.466

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07:28.566 --> 00:07:29.777

작문 소개가 나왔고요.

00:07:29.877 --> 00:07:32.710

작성 계획이고, (나)의
내용에 실제로 봤을 때

00:07:32.810 --> 00:07:35.926

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걸
확인하는 문제입니다.

00:07:36.026 --> 00:07:39.279

2번, (나)를 고려해서 중간
부분을 작성하려고 할 때

00:07:39.379 --> 00:07:42.683

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
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

00:07:42.783 --> 00:07:45.259

한번 골라 보라,
이렇게 얘기했네요.

00:07:45.359 --> 00:07:46.428

볼까요?

00:07:46.528 --> 00:07:50.887

작문 상황을 보니까 OO 향토
문화원 학생 해설 도우미에

00:07:50.987 --> 00:07:52.001

지원하는 거예요.

00:07:52.101 --> 00:07:54.065

향토 문화원의 학생 해설 도우미.

00:07:54.165 --> 00:07:56.386

학생이 가서 옆에서 이렇게
해설을 해주는 거죠.

00:07:56.486 --> 00:07:59.120

이 초가집은 어땠고,
이게 해설 도우미고요.

00:07:59.220 --> 00:08:03.306

선발 담당자에게 나를 알리는
글이 바로 이제 (나)글입니다.

00:08:03.406 --> 00:08:06.306

나 자신을 어필해야죠,
쉽게 말하면.

00:08:06.406 --> 00:08:10.170

예상 독자는 학생 해설 도우미
선발 담당자는 나의 학교 생활이

00:08:10.270 --> 00:08:11.263

궁금할 것 같다.

00:08:11.363 --> 00:08:13.278

내가 학교생활을 어떻게
했는지 궁금하겠죠.

00:08:13.378 --> 00:08:17.280

내용을 어떻게 생성하냐면 나에게
가장 의미 있는 활동 경험.

00:08:17.380 --> 00:08:20.986

그러니까 향토 문화원과 관련된 그런
내용, 그런 경험이 있어야겠죠.

00:08:21.086 --> 00:08:22.588

성장 배경도 비슷하겠고.

00:08:22.688 --> 00:08:25.249

경험의 목록을 나열해서
제시하는 게 좋겠다.

00:08:25.349 --> 00:08:27.456

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어요.

00:08:27.556 --> 00:08:31.728

생각을 하고 (나)의 글을
보니까, (나)의 글을 볼까요?

00:08:31.828 --> 00:08:38.198

동생이 뭐라고 하나면 OO
향토 문화원에서 우리 지역의

00:08:38.298 --> 00:08:42.086

향토 문화를 설명해 줄 학생
해설 도우미를 모집한대.

00:08:42.186 --> 00:08:44.412

관심 있는 분야라 지원하고
싶어서 자기소개서 작성 계획을

00:08:44.512 --> 00:08:45.840

구상해 보았는데 잘 안 돼.

00:08:45.940 --> 00:08:47.066
이 메모 좀 봐줘.

00:08:47.166 --> 00:08:48.224
누나한테 부탁했어요.

00:08:48.324 --> 00:08:52.852
메모 확인한 다음에 음, 단순히
자기를 알리는 것만으로는

00:08:52.952 --> 00:08:54.599
좀 부족한 것 같아.

00:08:54.699 --> 00:08:56.374
앞에 걸 좀 수정해주는 거잖아요.

00:08:56.474 --> 00:08:59.585
아까 목적이 선발 담당자에게
나를 알린다 그랬으니까

00:08:59.685 --> 00:09:02.623
단순히 그것으로는 좀 부족한
것 같아, 고쳐야 돼.

00:09:02.723 --> 00:09:05.959
네가 해설 도우미 선발 담당자라면
어떤 점이 궁금할 것 같아?

00:09:06.059 --> 00:09:08.381
단순히 학교생활을 궁금해할까?

00:09:08.481 --> 00:09:12.051
해설 도우미 선발하는 입장이라면
아, 내가 해설 도우미로

00:09:12.151 --> 00:09:13.489
적합한지가 궁금하겠지.

00:09:13.589 --> 00:09:14.561
이걸 바꾸는 거죠.

00:09:14.661 --> 00:09:17.976
그래서 1번 문제는 뭐냐면
이것을 통해서 조정하는 거야.

00:09:18.076 --> 00:09:19.746
누나의 그 설명을 통해서.

00:09:19.846 --> 00:09:23.019
그럼 해설 도우미로 적합하다는
것이 무슨 뜻일까?

00:09:23.119 --> 00:09:24.781
공고문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봐.

00:09:24.881 --> 00:09:27.910
공고문에 따르면 고등학생을
해설 도우미로 선발해서

00:09:28.010 --> 00:09:31.770
초등학생에게 지역의 향토 문화를

설명해주는 활동을 하게 한대.

00:09:31.870 --> 00:09:33.296
초등학생한테 설명하는 거야.

00:09:33.396 --> 00:09:35.830
향토 문화를 해설하려면
향토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

00:09:35.930 --> 00:09:40.273
이해 정도, 설명 능력이
필요할 것 같고,

00:09:40.373 --> 00:09:44.184
해설 대상인 초등학생과의
친화력도 중요할 거야.

00:09:44.284 --> 00:09:47.341
이런 점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겠지,
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

00:09:47.441 --> 00:09:49.893
음, 그러면 역사 문화
연구 동아리 활동했던 거,

00:09:49.993 --> 00:09:54.279
보고서 발표 대회 참가 경험,
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.

00:09:54.379 --> 00:09:55.228
이거는 뭐야?

00:09:55.328 --> 00:09:56.909
친화력이 있다는 걸
보여주는 거니까.

00:09:57.009 --> 00:10:00.988
학생회 봉사부장 활동, 나의 성장
배경을 쓰면 좋겠는데라고 얘기했죠.

00:10:01.088 --> 00:10:04.159
그것들을 모두 쓰지 말고
필요한 것들을 선별해서

00:10:04.259 --> 00:10:05.418
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.

00:10:05.518 --> 00:10:08.096
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
탐구하고 지역의 문화재를

00:10:08.196 --> 00:10:11.961
탐방했던 역사 문화 연구
동아리, 이거 도움이 되겠죠.

00:10:12.061 --> 00:10:15.322
청중들로부터 큰 호응을
얻었던 보고서 발표 대회,

00:10:15.422 --> 00:10:18.445
초등학생을 돌보았던 복지 센터 보조

교사 활동을 쓰면 될 것 같다.

00:10:18.545 --> 00:10:20.928

왜? 그게 바로 원하는
바일 거니까.

00:10:21.028 --> 00:10:23.067

그럼 선택된 내용을 어떻게
조직하면 좋을까?

00:10:23.167 --> 00:10:25.036

누나, 누나가 되게 똑똑하죠.

00:10:25.136 --> 00:10:28.780

단순히 너의 경험들을 나열하기보다,
아까 위에 경험 나열이라고 했는데.

00:10:28.880 --> 00:10:32.377

경험의 의의를 경험 내용과
연관 지어 조직하면

00:10:32.477 --> 00:10:34.737

글의 의도가 잘 전달될 거야.

00:10:34.837 --> 00:10:37.655

그리고 글 전체를 처음,
중간, 끝부분으로 나누고

00:10:37.755 --> 00:10:40.876

중간 부분에 경험과 관련된
내용을 쓰면 좋겠어.

00:10:40.976 --> 00:10:43.535

고마워 누나, 이제 잘 써 볼게.

00:10:43.635 --> 00:10:44.931

보자.

00:10:45.031 --> 00:10:49.459

㉠~㉡에 대한 조정 방안으로 적절하지
않은 것을 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10:49.559 --> 00:10:53.148

㉠가 뭐였냐면 앞에 나를
알린다 그랬잖아요.

00:10:53.248 --> 00:10:56.843

해설 도우미로 적합함을 보이는
것을 목적으로 구체화한다.

00:10:56.943 --> 00:10:58.452

누나가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.

00:10:58.552 --> 00:10:59.865

정답 1번 적절하죠.

00:10:59.965 --> 00:11:02.447

㉢를 보니까 ㉢는 나의
학교생활이 궁금하다.

00:11:02.547 --> 00:11:04.385

학교생활 궁금하지
않을 거란 말이야.

00:11:04.485 --> 00:11:09.798
공고문을 토대로 예상 독자의 주된
관심사를 학생 해설 도우미로서

00:11:09.898 --> 00:11:12.047
요건 충족 여부로 재설정한다.

00:11:12.147 --> 00:11:16.100
학생 해설 도우미로서
요건 충족이라고 하면

00:11:16.200 --> 00:11:19.093
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도
잘 알아야 되는 거고,

00:11:19.193 --> 00:11:21.397
초등학생과의 친화력도
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

00:11:21.497 --> 00:11:24.247
그 충족 여부로 다시 한번
설정해 보는 게 좋겠다.

00:11:24.347 --> 00:11:27.637
이렇게 조언을 해서 이거를
조정하는 게 적절하겠죠.

00:11:27.737 --> 00:11:29.544
3번, ©가 뭐였죠?

00:11:29.644 --> 00:11:32.772
©는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
경험 활동이라고 했어요.

00:11:32.872 --> 00:11:35.530
의미 있는 활동 중에서 학생
해설 도우미로서의 자질을

00:11:35.630 --> 00:11:36.595
보여줄 수 있는 활동.

00:11:36.695 --> 00:11:40.502
아까 역사 연구 동아리, 발표했던
거, 그다음에 보육교사했던 거.

00:11:40.602 --> 00:11:44.345
그게 적절한 거니까 그 활동에
초점을 맞춰서 수정하면 되겠죠.

00:11:44.445 --> 00:11:45.687
㉠를 볼까요?

00:11:45.787 --> 00:11:48.298
나의 성장 배경인데.

00:11:48.398 --> 00:11:52.117
자신의 친화력을 드러낼 수
있는 소재로 성장 배경 대신에

00:11:52.217 --> 00:11:54.711

학급 내의 교우 관계로
초점 맞춘다, 틀렸죠.

00:11:54.811 --> 00:11:56.015

왜 그럴까요?

00:11:56.115 --> 00:11:58.395

그 친화력을 보여주기
위해서는 뭐냐면

00:11:58.495 --> 00:12:00.305

누구에게 친화력을 보여주는 거냐면

00:12:00.405 --> 00:12:03.266

초등학생에게 친화력을
보여주는 거잖아요.

00:12:03.366 --> 00:12:06.771

학급 내의 교우 관계와
초등학생에게 친화력을 보여주는 건

00:12:06.871 --> 00:12:09.235

다른 의미일 거 아니에요,
다른 관계이고.

00:12:09.335 --> 00:12:12.988

그러니까 학급 내의 교우 관계는
그 담당자가, 선발하는 담당자가

00:12:13.088 --> 00:12:15.164

별로 관심을 보일 분야가 아니죠.

00:12:15.264 --> 00:12:17.606

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 정답이에요.

00:12:17.706 --> 00:12:19.143

5번 볼까요?

00:12:19.243 --> 00:12:23.086

5번은 조직 방법이 나열한다고
아까 얘기했는데요.

00:12:23.186 --> 00:12:26.949

아까 누나는 뭐라고 했냐면
그 의의와 그 내용을,

00:12:27.049 --> 00:12:29.054

경험 내용을 같이 제시하는
게 좋겠다고 했으니까

00:12:29.154 --> 00:12:30.953

이렇게 수정하는 게 적절하겠죠.

00:12:31.053 --> 00:12:34.197

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

00:12:34.297 --> 00:12:35.462

2번을 볼까요?

00:12:35.562 --> 00:12:38.097

(나)를 고려해서 중간
부분을 작성하려고 했을 때

00:12:38.197 --> 00:12:40.572

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
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.

00:12:40.672 --> 00:12:43.909

1번, 역사 문화 연구
동아리 활동입니다.

00:12:44.009 --> 00:12:46.864

동아리 활동으로 우리나라 역사와
문화를 탐구하는 과정에서

00:12:46.964 --> 00:12:50.778

얻은 지식을, 역사 문화에도
지역의 역사 문화에도

00:12:50.878 --> 00:12:53.201

적용할 수 있는 안목을
갖게 되었다.

00:12:53.301 --> 00:12:54.268

당연하죠.

00:12:54.368 --> 00:12:55.862

그러면 담당자가 괜찮은데?

00:12:55.962 --> 00:12:57.264

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.

00:12:57.364 --> 00:13:00.490

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 활동입니다.

00:13:00.590 --> 00:13:03.754

탐방하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우리 지역,
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서술한다.

00:13:03.854 --> 00:13:04.481

맞죠.

00:13:04.581 --> 00:13:05.884

보고서 발표 대회입니다.

00:13:05.984 --> 00:13:09.376

설명 능력이 쉽게 설명할
수 있는 거로 이어진다.

00:13:09.476 --> 00:13:10.521

적절하겠죠.

00:13:10.621 --> 00:13:13.226

그다음에 복지 센터
보조 교사입니다.

00:13:13.326 --> 00:13:15.625

초등학생 돌보는 활동을
진행하면서 초등학생과

00:13:15.725 --> 00:13:16.779
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.

00:13:16.879 --> 00:13:19.097
적절하죠, 중간 부분에
들어가는 거로.

00:13:19.197 --> 00:13:20.341
보조 교사 활동인데.

00:13:20.441 --> 00:13:23.722
학업과 병행하면서 겪었던
어려움을 왜 호소해요, 갑자기.

00:13:23.822 --> 00:13:26.355
학업과 병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.

00:13:26.455 --> 00:13:27.587
호소할 필요 없죠.

00:13:27.687 --> 00:13:29.976
담당자가 요구하는 것만
얘기하면 된단 말이에요.

00:13:30.076 --> 00:13:33.009
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
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.

00:13:33.109 --> 00:13:35.587
정답은 5번이 적절하겠죠.

00:13:35.687 --> 00:13:36.607
됐습니까?

00:13:36.707 --> 00:13:40.060
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

00:13:40.160 --> 00:13:41.964
유형 연습 두 번째를 보니까요.

00:13:42.064 --> 00:13:43.657
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.

00:13:43.757 --> 00:13:46.726
(가)와 (나)를 통해 알 수 있는
작문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13:46.826 --> 00:13:50.247
작문 과제가 나오고 학생의
초고가 나왔습니다.

00:13:50.347 --> 00:13:53.424
㉠을 참고해서 (나)의
마지막 단락을 작성한다.

00:13:53.524 --> 00:13:55.593
㉡에 들어갈 내용으로
가장 적절한 것은?

00:13:55.693 --> 00:13:58.957
마지막 단락에 마지막 부분으로

들어갈 내용이 무엇이 적절한지

00:13:59.057 --> 00:14:00.174
확인하는 겁니다.

00:14:00.274 --> 00:14:01.536
가볼까요?

00:14:01.636 --> 00:14:02.553
내용 보죠.

00:14:02.653 --> 00:14:04.468
학생의 작문 과제 수행 일지입니다.

00:14:04.568 --> 00:14:07.395
예상 독자는 누구냐면 교지를
읽은 학교 친구들이에요.

00:14:07.495 --> 00:14:10.855
그다음에 글감은 학교
친구들에게는 낫설 수 있으나

00:14:10.955 --> 00:14:14.672
문화유산으로서 가치 있는 잡상이라는
글감을 택해서 글을 써야겠다.

00:14:14.772 --> 00:14:15.873
잡상이 뭐죠?

00:14:15.973 --> 00:14:19.809
글 쓰는 목적은 잡상을 잘
모르는 학교 친구들에게

00:14:19.909 --> 00:14:21.907
소개를 하는 게 목적이구요.

00:14:22.007 --> 00:14:24.500
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게
글을 쓰는 목적이예요.

00:14:24.600 --> 00:14:29.229
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니까
정보 전달에 목적이 있는 글이겠죠.

00:14:29.329 --> 00:14:32.876
자료 수집은 잡상의 특징과
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겠다.

00:14:32.976 --> 00:14:34.188
당연하겠죠.

00:14:34.288 --> 00:14:38.001
글의 구성과 표현 전략을 보시면
정보의 특성을 고려해서

00:14:38.101 --> 00:14:39.939
정의와 예시 방법.

00:14:40.039 --> 00:14:43.303
그러니까 뭐냐면 정의가
필요하겠죠, 잡상이란 무엇이다.

00:14:43.403 --> 00:14:46.138
정의가 필요하겠고, 그 잡상이라고
하는 것이 어떤 건지

00:14:46.238 --> 00:14:48.957
예를 들어서 설명해줘야 되는
거니까 정의와 예시 등의

00:14:49.057 --> 00:14:50.271
방법을 통해서 설명한다.

00:14:50.371 --> 00:14:54.725
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기보다는
아래와 같이 글을 구성해야겠다.

00:14:54.825 --> 00:14:58.020
첫 번째 단락은 개념 정리해야겠다,
이렇게 구성하고요.

00:14:58.120 --> 00:15:02.655
두 번째 단락은 예시를 제시하고 지붕
위에 올리는 이유를 설명해야겠다.

00:15:02.755 --> 00:15:04.822
이게 지붕 위에 올리는 건가 봐요.

00:15:04.922 --> 00:15:06.128
설명해야겠다.

00:15:06.228 --> 00:15:08.189
마지막 단락 ㉠이잖아요.

00:15:08.289 --> 00:15:11.748
여기에 맞게 이런 조건에 맞게
㉡을 한번 작성해 보라.

00:15:11.848 --> 00:15:15.401
이 조건에 맞게 2번 선택지 한번
풀어 보라, 2번 문제 풀어 보라

00:15:15.501 --> 00:15:16.472
이런 뜻이에요.

00:15:16.572 --> 00:15:18.896
잡상의 가치를 제시하고
문화유산에 대한

00:15:18.996 --> 00:15:21.048
관심을 갖도록 요구하며 끝맺어야지.

00:15:21.148 --> 00:15:22.085
조건을 보세요.

00:15:22.185 --> 00:15:24.208
가치 제시하는 거고요.

00:15:24.308 --> 00:15:26.890
그다음에 관심 요구하는
게 나와야 돼요.

00:15:26.990 --> 00:15:28.528
첫 번째 조건, 두 번째 조건.

00:15:28.628 --> 00:15:30.019
그다음에 직유법 활용해야겠어.

00:15:30.119 --> 00:15:31.740
이게 표현 조건입니다.

00:15:31.840 --> 00:15:35.231
직유법이 표현 조건이니까 ~처럼,
~같이, ~듯이, ~인양

00:15:35.331 --> 00:15:38.131
이게 들어가는 거니까
표현 조건 나왔고요.

00:15:38.231 --> 00:15:41.093
내용 조건들은 가치 제시한다,
관심을 유발한다.

00:15:41.193 --> 00:15:43.882
그런 내용이 나오면 2번이
정답이 되겠네요.

00:15:43.982 --> 00:15:47.822
잡상이 궁금합니다, 잡상이 뭘까요?

00:15:47.922 --> 00:15:49.276
이게 잡상입니다.

00:15:49.376 --> 00:15:52.139
궁궐 위에 지붕 위에
있는 조형물들 있잖아요.

00:15:52.239 --> 00:15:54.366
그게 바로 잡상이라고 하네요.

00:15:54.466 --> 00:15:57.053
궁궐을 자주 다녀본 친구들도
궁궐 지붕 위에 있는

00:15:57.153 --> 00:16:00.290
작은 조형물을 무엇이라고
부르는지 잘 모를 겁니다.

00:16:00.390 --> 00:16:02.660
이런 조형물들을
잡상이라고 부르는데요.

00:16:02.760 --> 00:16:06.149
잡상은 전통 문화유산으로서
주로 궁궐 지붕 위에 올리는

00:16:06.249 --> 00:16:07.701
장식물을 뜻합니다.

00:16:07.801 --> 00:16:10.257
내용이 이제 정의의 방법이 나왔죠.

00:16:10.357 --> 00:16:11.860

이런 것들을 잡상이라고 한데요.

00:16:11.960 --> 00:16:13.274

저도 몰랐습니다, 처음 봤어요.

00:16:13.374 --> 00:16:16.960

잡상은 건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,
보통 여러 개를 동시에

00:16:17.060 --> 00:16:19.302

지붕 위에 올리는데, 그
형상이 매우 다양합니다.

00:16:19.402 --> 00:16:21.575

예를 들어서, 예시가 나왔죠?

00:16:21.675 --> 00:16:24.940

봉황이나 용, 해태와 같은
전설 속의 동물도 있고,

00:16:25.040 --> 00:16:28.059

서유기에 등장하는 손오공, 저팔계,
사오정처럼 친숙한 것도 있습니다.

00:16:28.159 --> 00:16:31.194

지붕 위에 잡상을 올리는
이유가 나왔죠.

00:16:31.294 --> 00:16:34.286

잡상이 궁궐에 행운을
불러오고 화재로부터

00:16:34.386 --> 00:16:37.342

궁궐을 보호해준다는
의미로 만들었습니다.

00:16:37.442 --> 00:16:40.479

선조들이 집에 처용의 그림을
걸어 나쁜 것으로부터

00:16:40.579 --> 00:16:42.656

가정을 보호하려 했던 것과
유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

00:16:42.756 --> 00:16:47.761

처용이라고 해서 귀신을 몰아내고
있는 옛날에 처용가라고 하는

00:16:47.861 --> 00:16:50.199

그것의 주인공이 바로
이 처용인데요.

00:16:50.299 --> 00:16:54.336

그런 의미와 똑같이 잡상도 역시
화재를 막으려는 이유로 만들었대요.

00:16:54.436 --> 00:16:58.932

㉠에 들어갈 말은 아까 관심 갖도록
한다, 잡상의 가치, 직유법.

00:16:59.032 --> 00:17:01.560

이게 쓰이는 게 정답이 되겠죠.

00:17:01.660 --> 00:17:02.891
잡니다.

00:17:02.991 --> 00:17:05.808
(가)와 (나)를 통해 알 수 있는
작문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

00:17:05.908 --> 00:17:07.069
한번 골라 보라.

00:17:07.169 --> 00:17:09.495
1번, 독자를 학교
친구들로 한정했잖아요.

00:17:09.595 --> 00:17:12.475
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거니까 교지에
들어간다 그랬니, 애들아?

00:17:12.575 --> 00:17:13.881
교지 입을 학생 친구들.

00:17:13.981 --> 00:17:16.384
예상 독자를 고려하는
행위다, 당연하죠.

00:17:16.484 --> 00:17:18.799
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썼으니깐요.

00:17:18.899 --> 00:17:22.006
잡상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
것에서 작문은 글감과 관련된

00:17:22.106 --> 00:17:23.234
내용을 생성한다.

00:17:23.334 --> 00:17:25.851
내용 생성이 바로 자료
수집이니까 적절하죠.

00:17:25.951 --> 00:17:28.098
정의, 예시를 통해
잡상을 설명한 것에서

00:17:28.198 --> 00:17:30.585
작문은 정보 제시 방법을 고려한다.

00:17:30.685 --> 00:17:33.099
어떻게 정보를 전달할
것인가를 고려하는 게

00:17:33.199 --> 00:17:36.413
바로 정의, 예시를 통해서
고려해야지라고 한 거니까

00:17:36.513 --> 00:17:39.943
지금 작문의 특성 중의
하나에 해당하겠죠.

00:17:40.043 --> 00:17:42.407

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을 구성한
것에서, 이거 틀렸잖아요.

00:17:42.507 --> 00:17:44.396
시간의 흐름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.

00:17:44.496 --> 00:17:45.711
시간 흐름이 없죠.

00:17:45.811 --> 00:17:47.677
소재에 따라 내용 구성
방법을 달리한다.

00:17:47.777 --> 00:17:49.706
그건 당연한데, 저게 틀렸어요.

00:17:49.806 --> 00:17:52.754
시간 구성 방법에 따라서
구성한 게 아니니까 틀렸죠.

00:17:52.854 --> 00:17:55.527
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잡상을
선정하여 소개한 것에서

00:17:55.627 --> 00:17:57.302
목적에 고려해서 글을 쓰는 행위다.

00:17:57.402 --> 00:17:59.913
가치 있는 잡상을 선정해서
소개하는 거니까 소개를 목적으로

00:18:00.013 --> 00:18:04.008
쓴 거니까 목적에 고려해서 글을
쓰는 행위가 바로 작문이다.

00:18:04.108 --> 00:18:06.320
이렇게 작문을 정의할
수 있는 거죠.

00:18:06.420 --> 00:18:09.045
정답 4번입니다.

00:18:09.145 --> 00:18:12.068
㉠을 참고해서 (나)의 마지막
단락을 작성하고자 한다.

00:18:12.168 --> 00:18:13.876
㉡에 들어갈 내용으로
가장 적절한 것은?

00:18:13.976 --> 00:18:14.745
조건이 있죠.

00:18:14.845 --> 00:18:16.840
조건이 우선 직유법이 쓰였습니다.

00:18:16.940 --> 00:18:18.335
직유법 쓰였는지 확인하죠.

00:18:18.435 --> 00:18:21.056
들쭉처럼이라고 했으니까

직유법이 쓰였네요.

00:18:21.156 --> 00:18:25.458

잡상은 길가의 들꽃처럼 잘
떨지 않지만, 궁궐을 기원하는

00:18:25.558 --> 00:18:27.628

선조들의 마음을 담은
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.

00:18:27.728 --> 00:18:28.708

이게 바로 뭐예요?

00:18:28.808 --> 00:18:29.914

가치가 들어가 있죠.

00:18:30.014 --> 00:18:31.378

잡상의 가치고.

00:18:31.478 --> 00:18:33.812

문화유산에도 관심을 기울일
필요가 있습니다.

00:18:33.912 --> 00:18:35.711

정답 1번이네요, 그렇죠?

00:18:35.811 --> 00:18:36.660

1번이네요.

00:18:36.760 --> 00:18:39.104

2번, 지금도 궁궐 지붕 위에는
잡상들이 열병식을 하듯이,

00:18:39.204 --> 00:18:40.410

직유법 맞고요.

00:18:40.510 --> 00:18:41.711

궁궐 지키고 있습니다.

00:18:41.811 --> 00:18:45.497

선조들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.

00:18:45.597 --> 00:18:50.207

이거는 가치는 나와 있지만,
문화유산에 관심을 기울여라

00:18:50.307 --> 00:18:51.609

이런 내용은 없죠.

00:18:51.709 --> 00:18:52.933

다 볼까요?

00:18:53.033 --> 00:18:55.167

마치, 직유법 쓰였고요.

00:18:55.267 --> 00:18:57.344

지붕 위에서 궁궐 안의 이야기에
귀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.

00:18:57.444 --> 00:18:59.395

잡상을 보고 있으면

그들이 간직하고 있는

00:18:59.495 --> 00:19:01.105

궁궐의 비밀을 전해주는
것 같습니다.

00:19:01.205 --> 00:19:03.967

가치는 가능하지만, 문화유산
보호하자는 내용이 없죠.

00:19:04.067 --> 00:19:05.988

큰 것과 작은 것이 조화를
이루어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.

00:19:06.088 --> 00:19:09.375

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는
없지만, 문화유산 가치가 높습니다.

00:19:09.475 --> 00:19:11.491

이건 직유법 자체가 안 보이네요.

00:19:11.591 --> 00:19:13.897

고궁을 찾는 사람들은 언제나
반갑게 맞이합니다.

00:19:13.997 --> 00:19:17.107

잡상이 반갑게 맞이하니까
의인법만 쓰였죠.

00:19:17.207 --> 00:19:18.488

직유법은 없네요.

00:19:18.588 --> 00:19:20.389

이웃을 사랑하는 선조들의
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.

00:19:20.489 --> 00:19:22.479

가르침을 이어가야겠습니다.

00:19:22.579 --> 00:19:25.401

이거는 둘 다 들어가
있지만, 직유법이 없네요.

00:19:25.501 --> 00:19:28.260

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
정답이 되겠습니다.

00:19:28.360 --> 00:19:29.446

됐습니까?

00:19:29.546 --> 00:19:32.218

그다음 마지막 유형
세 번째 마지막입니다.

00:19:32.318 --> 00:19:35.069

그리고 실전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.

00:19:35.169 --> 00:19:36.439

1번 볼까요?

00:19:36.539 --> 00:19:39.219

㉠~㉡ 중 초고에
반영되지 않은 것은?

00:19:39.319 --> 00:19:39.897
그러니까 뭐야?

00:19:39.997 --> 00:19:41.662
내용 일치 여부를
묻는 문제였습니다.

00:19:41.762 --> 00:19:46.536
그다음 2번은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
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인데요.

00:19:46.636 --> 00:19:49.216
㉢~㉣의 활용에 대한
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

00:19:49.316 --> 00:19:51.354
골라보라고 얘기했어요.

00:19:51.454 --> 00:19:55.230
3번은 보기는 초고를 읽은
편집부의 검토 의견과

00:19:55.330 --> 00:19:57.162
이에 따라 학생이 고쳐 쓴 글이다.

00:19:57.262 --> 00:20:01.307
[가]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
적절한 것을 한번 골라 봐라

00:20:01.407 --> 00:20:02.944
이렇게 얘기했습니다.

00:20:03.044 --> 00:20:07.300
우선 처음에 나오는 내용을
보시고 초고를 보시면서

00:20:07.400 --> 00:20:09.125
문제 풀어볼게요.

00:20:09.225 --> 00:20:12.780
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
정보 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

00:20:12.880 --> 00:20:14.716
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입니다.

00:20:14.816 --> 00:20:17.254
학교 학생들한테 이런
아주 거창한 내용으로.

00:20:17.354 --> 00:20:20.390
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했어,
우리나라 농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?

00:20:20.490 --> 00:20:22.678
그 미래에 대해서 글을 써주세요.

00:20:22.778 --> 00:20:26.360

글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은
예상되는 미래 농업을 제시해야겠어.

00:20:26.460 --> 00:20:29.850
그럼 이게 본문에 있는지, 초고에
있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에요.

00:20:29.950 --> 00:20:31.783
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며
글을 시작해야겠어.

00:20:31.883 --> 00:20:35.094
그렇게 됐는지 확인하라는 뜻입니다.

00:20:35.194 --> 00:20:39.685
그다음에 농업에 도입될 정보 통신
기술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고요.

00:20:39.785 --> 00:20:41.921
농업 발전을 위한 정보
통신 기술 관련 정책이

00:20:42.021 --> 00:20:43.751
어떻게 변화됐는지 설명해야 되고.

00:20:43.851 --> 00:20:46.218
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
해결할 수 있는 현재 농업의

00:20:46.318 --> 00:20:47.574
문제 상황을 제시해야겠어.

00:20:47.674 --> 00:20:50.631
이게 있는지, 다 있는지
확인하면서 문제 풀면 되겠죠.

00:20:50.731 --> 00:20:52.561
가볼까요?

00:20:52.661 --> 00:20:56.538
초고를 보니까 인류 역사에서
가장 오래된 산업이자

00:20:56.638 --> 00:21:00.302
인류의 운명과 함께할 산업은
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졌죠.

00:21:00.402 --> 00:21:02.617
초고 처음 부분에서
질문을 던졌다는 얘기는

00:21:02.717 --> 00:21:05.909
관심을 유발한다는 뜻입니다.

00:21:06.009 --> 00:21:08.596
신석기 시대 이래 지속적으로
발전되어 온 농업은

00:21:08.696 --> 00:21:12.405
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
기본적인 산업이 바로 농업이겠죠.

00:21:12.505 --> 00:21:17.441

이제 농업은 정보 통신 기술
기반의 빅데이터 활용 기술과

00:21:17.541 --> 00:21:22.524

환경 제어 기술의 발달과 함께
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.

00:21:22.624 --> 00:21:24.947

지금 신석기 이래 이렇게
농업이 이렇게 발전했는데

00:21:25.047 --> 00:21:29.189

최근 정보 통신 기술 발달로 인해서
농업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.

00:21:29.289 --> 00:21:30.313

넘어가죠.

00:21:30.413 --> 00:21:37.502

기상과 병충해 같은 농업 관련
정보를 수집, 처리, 활용하는

00:21:37.602 --> 00:21:40.955

빅데이터 활용 기술이, 여러 정보들이나
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.

00:21:41.055 --> 00:21:44.517

농업에 도입되면 농산물의
생산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

00:21:44.617 --> 00:21:48.552

가능해져서 농가가 안정적인
수익을 올릴 수 있죠.

00:21:48.652 --> 00:21:51.835

그러니까 기상에 대한 정보,
병충해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

00:21:51.935 --> 00:21:56.887

정확하다면 안정적인 수익, 어떤
해에 기상청 정보 이런 것들이

00:21:56.987 --> 00:21:59.854

정확하지 않아서 다 말라죽거나
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.

00:21:59.954 --> 00:22:01.935

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을
올릴 수 있다.

00:22:02.035 --> 00:22:05.932

지금까지는 농산물을 기를 때
기상 상태나 병충해와 같은

00:22:06.032 --> 00:22:10.589

외부 환경으로 인한 피해가 생산량에
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어요.

00:22:10.689 --> 00:22:14.259

생산량을 예측하고 조절하는
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.

00:22:14.359 --> 00:22:20.236
이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거나
폭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

00:22:20.336 --> 00:22:23.529
농업 관련된 빅데이터가 많이
축적되고 이를 실시간으로

00:22:23.629 --> 00:22:27.280
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계획적인
생산과 체계적인 관리가

00:22:27.380 --> 00:22:29.272
가능해질 수 있죠.

00:22:29.372 --> 00:22:31.612
실제로 농업 관련 빅데이터를
활용해 농사를 지은

00:22:31.712 --> 00:22:35.768
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된 사례들도
볼 수 있다고 합니다.

00:22:35.868 --> 00:22:39.299
그다음 보면 재배 환경 정보를.

00:22:39.399 --> 00:22:43.307
[A], [B]가 여기
2번에서 활용되네요, 그렇죠?

00:22:43.407 --> 00:22:45.992
재배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
수집, 처리해서

00:22:46.092 --> 00:22:50.251
최적화된 정보에 따라서
재배 환경을 조절하고

00:22:50.351 --> 00:22:52.830
자동 재배 시설을 제어하는
기술이 도입되면.

00:22:52.930 --> 00:22:54.733
요새 그런 거 많아요, 여러분.

00:22:54.833 --> 00:22:56.937
실내에서의 대규모
농업도 가능해진다.

00:22:57.037 --> 00:22:59.224
안에서 다 기상 조절
다 해주는 거죠.

00:22:59.324 --> 00:23:01.843
온도와 습도, 이산화탄소의
농도, 빛의 양 등

00:23:01.943 --> 00:23:04.891

농작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들을
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시설이

00:23:04.991 --> 00:23:08.481

완비된 식물 공장이 확산되면
농업은 이전과 달리

00:23:08.581 --> 00:23:11.349

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.

00:23:11.449 --> 00:23:14.293

또한 식물 공장을 고층
건물 형태로 지으면.

00:23:14.393 --> 00:23:17.311

고층 건물 형태의 식물 공장도
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

00:23:17.411 --> 00:23:19.775

그러니까 1층에 뭐 심고, 2층에
뭐 심고, 3층에 뭐 심고.

00:23:19.875 --> 00:23:23.403

이 전체 하나가 이제 거대한 하나의
농장이 되는 거예요, 건물 전체가.

00:23:23.503 --> 00:23:24.633

획기적이죠.

00:23:24.733 --> 00:23:28.579

공간이 한정된 도시에서도
좋은 품질의 농작물을

00:23:28.679 --> 00:23:30.089

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.

00:23:30.189 --> 00:23:33.437

도심 곳곳의 고층 건물에서 층마다
농산물을 재배하는 모습을

00:23:33.537 --> 00:23:36.953

영화가 아닌 현실에서
보게 될 것이다.

00:23:37.053 --> 00:23:40.943

발달된 정보 통신 기술이 농업에
도입되면 농가는 안정적인

00:23:41.043 --> 00:23:42.724

수익을 올릴 수 있고요.

00:23:42.824 --> 00:23:44.969

도시의 고층 건물에서도 대규모로
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

00:23:45.069 --> 00:23:46.083

가능할 것이다.

00:23:46.183 --> 00:23:47.352

요약 정리했습니다.

00:23:47.452 --> 00:23:49.659

어업과 같은 전통적인
산업에서도 농업과 유사한

00:23:49.759 --> 00:23:51.529

발전 양상을 보일 것이고요.

00:23:51.629 --> 00:23:54.988

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
농업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.

00:23:55.088 --> 00:23:56.104

뭐가 없습니까?

00:23:56.204 --> 00:23:57.513

정책에 대한 내용이 없죠.

00:23:57.613 --> 00:23:58.731

정답 몇 번입니까?

00:23:58.831 --> 00:24:00.095

4번이 정답이네요.

00:24:00.195 --> 00:24:02.110

정책, 아까 떠올린 생각.

00:24:02.210 --> 00:24:05.031

4번, 기술, 정책에 관련해 어떻게
변화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죠.

00:24:05.131 --> 00:24:07.981

그러니까 정답이 4번 정답입니다.

00:24:08.081 --> 00:24:09.624

이렇게 푸는 거예요.

00:24:09.724 --> 00:24:10.653

2번 문제 볼까요?

00:24:10.753 --> 00:24:14.308

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쓰기
위해 수집한 자료의 일부이다.

00:24:14.408 --> 00:24:18.134

㉠~㉢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
적절하지 않은 겁니다.

00:24:18.234 --> 00:24:23.787

과수원 농사를 짓는 OO
농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

00:24:23.887 --> 00:24:27.121

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생산량
25% 이상 향상되었고,

00:24:27.221 --> 00:24:28.454

운영비는 10% 이상 줄어들었다.

00:24:28.554 --> 00:24:30.534

이 내용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.

00:24:30.634 --> 00:24:36.282
1번 선택지, ㉠의 정보를 활용해서
[A]에서 정보 통신 기술 도입의

00:24:36.382 --> 00:24:37.284
긍정적 사례가 되는 거죠.

00:24:37.384 --> 00:24:39.223
생산량이 늘었으니까,
운영비 줄었으니까.

00:24:39.323 --> 00:24:41.432
1번 선택지 적절하죠.

00:24:41.532 --> 00:24:46.216
그다음, 기상 관련 정보가 축적될수록
가뭄 피해, 수해, 냉해를

00:24:46.316 --> 00:24:47.272
최소화할 수 있다.

00:24:47.372 --> 00:24:48.325
가뭄 피해, 냉해.

00:24:48.425 --> 00:24:49.665
즉, 2번 선택지.

00:24:49.765 --> 00:24:52.982
㉠의 현상을 포괄하여 [A]에서
생산량의 예측과 조절이

00:24:53.082 --> 00:24:55.357
어려웠던 원인이 바로
이런 것들 때문이잖아요.

00:24:55.457 --> 00:25:00.237
이걸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니까
2번 선택지도 적절하겠죠.

00:25:00.337 --> 00:25:03.729
도시에서 농작물을 인공적으로
생산하는 식물 공장이

00:25:03.829 --> 00:25:06.443
미래 식량 위기의 대안으로
급부상되고 있다.

00:25:06.543 --> 00:25:07.563
㉡ 볼까요?

00:25:07.663 --> 00:25:10.326
㉡의 규모를 예측하여, 파악요.

00:25:10.426 --> 00:25:15.897
미래 식량 위기의 규모를 예측해서.

00:25:15.997 --> 00:25:18.554
[B]에서 식물 공장의
경제적 효과를 제시한다.

00:25:18.654 --> 00:25:22.735

미래 식량 위기 상황이
어느 정도 될 것이냐.

00:25:22.835 --> 00:25:25.837

이거에 대한 예측은
[B]에서 나오지 않았죠.

00:25:25.937 --> 00:25:29.880

[B]에서 나와 있던 것은 뭐냐면
어떻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

00:25:29.980 --> 00:25:34.141

빛의 양을 조절하고, 이산화탄소 농도
조절하고 이런 것만 나와 있죠.

00:25:34.241 --> 00:25:38.590

미래 식량 위기를 예측하고,
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

00:25:38.690 --> 00:25:40.370

예측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.

00:25:40.470 --> 00:25:42.256

그 규모를 예측하는 내용이 없었죠.

00:25:42.356 --> 00:25:44.930

한정된 공간에서의 토지
이용 효율이 높다고 하면

00:25:45.030 --> 00:25:48.342

4번 보면 ㉔의 실현
가능한 모습을 구체화해서

00:25:48.442 --> 00:25:50.806

[B]에서 어떤
도시에서 건물 형태로,

00:25:50.906 --> 00:25:54.075

고층 건물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
거니까 4번도 적절하고.

00:25:54.175 --> 00:25:57.273

농작물이 자라는 데 필수적인 환경을
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.

00:25:57.373 --> 00:26:00.748

5번, ㉔의 요소들을 찾아서
[B]에서 식물 공장의 시설에 대한

00:26:00.848 --> 00:26:02.627

정보를 제시하는 데 활용한다.

00:26:02.727 --> 00:26:03.526

적절하죠.

00:26:03.626 --> 00:26:05.553

정답은 몇 번이냐면
3번이 정답입니다.

00:26:05.653 --> 00:26:12.011

[B] 부분에서 ㉔ 미래 식량 위기의

규모를 예측하고 있었던 건 없었어요.

00:26:12.111 --> 00:26:13.755

그래서 틀렸죠.

00:26:13.855 --> 00:26:15.211

3번을 볼까요?

00:26:15.311 --> 00:26:18.635

3번은 보기는 초고를 읽은

편집부의 검토 의견과

00:26:18.735 --> 00:26:20.373

이에 따라 학생이

고쳐 쓴 글입니다.

00:26:20.473 --> 00:26:21.401

고쳐 쓴 거예요.

00:26:21.501 --> 00:26:23.606

[가]에 들어갈 내용으로

가장 적절한 것은?

00:26:23.706 --> 00:26:25.467

초고 잘 읽었습니다.

00:26:25.567 --> 00:26:28.104

[가]을 고려해서 마지막 문단을

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.

00:26:28.204 --> 00:26:29.647

뭘 고려했는지 보면 됩니다.

00:26:29.747 --> 00:26:31.033

즉, 마지막 문단이 봐봐요.

00:26:31.133 --> 00:26:34.559

왼쪽에 발달된 정보 통신

기술이 여기에서부터

00:26:34.659 --> 00:26:38.090

계속 발전할 것이다, 이 내용이

뭘로 바뀌었다는 얘기야?

00:26:38.190 --> 00:26:39.676

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야.

00:26:39.776 --> 00:26:41.760

그럼 바뀌었으니까 왜 바뀌었을까.

00:26:41.860 --> 00:26:44.560

[가]을 고려해서 고쳐주시면

좋겠습니다 했으니까

00:26:44.660 --> 00:26:46.988

왜 바뀌었을까 이걸

봐야 되는 거죠.

00:26:47.088 --> 00:26:50.794

발달된 정보 통신 기술이 농업에

도입되면 농가는 안정적인 수익을

00:26:50.894 --> 00:26:54.686

올릴 수 있고, 도시의 고층
건물에서도 대규모로 농작물을

00:26:54.786 --> 00:26:56.355

재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.

00:26:56.455 --> 00:26:58.319

물론, 이게 나왔죠.

00:26:58.419 --> 00:27:02.566

물론 이와 같은 기대가 실현되기
위해서는 높은 초기 투자 비용 등

00:27:02.666 --> 00:27:04.196

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.

00:27:04.296 --> 00:27:07.494

문제점을 지적한 게 여기 앞에
부분과 달라진 거잖아요.

00:27:07.594 --> 00:27:09.512

그러니까 바로 무엇을 고려했다?

00:27:09.612 --> 00:27:13.157

이게 답인 거는 이 부분 때문에
바로 답이 될 수 있는 거죠.

00:27:13.257 --> 00:27:15.669

이러한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
나갈 때 우리 농업은

00:27:15.769 --> 00:27:17.619

계속 발전할 수 있을
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27:17.719 --> 00:27:24.390

그러면 정답은
몇 번이나면 3번을 보면

00:27:24.490 --> 00:27:35.000

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, 미래를
낙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문제점.

00:27:35.100 --> 00:27:38.576

앞에서 보면 재배하는
것이 가능할 것이다,

00:27:38.676 --> 00:27:41.544

어업과 같은 전통 산업에서도.

00:27:41.644 --> 00:27:43.820

두 가지인데요, 이걸 볼까요?

00:27:43.920 --> 00:27:49.335

우선 낙관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
보기에 문제점을 얘기했죠.

00:27:49.435 --> 00:27:50.919

문제점을 얘기했고요.

00:27:51.019 --> 00:27:54.418
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건 바로
뒀었다면 농업에 관한 내용이었는데

00:27:54.518 --> 00:27:56.679
어업에 관한 내용이
들어간 있었잖아요.

00:27:56.779 --> 00:27:59.443
그러니까 그 두 가지 문제를
다 지적해서 고친 게

00:27:59.543 --> 00:28:02.426
바로 보기에서 고친 거니까
어업에 관한 내용이 빠졌죠?

00:28:02.526 --> 00:28:03.828
이게 왜 빠졌을까?

00:28:03.928 --> 00:28:05.306
흐름에 어긋났구나.

00:28:05.406 --> 00:28:07.695
그다음에 문제점이 들어갔어,
왜 들어갔을까?

00:28:07.795 --> 00:28:09.910
미래를 낙관적으로 봤기
때문에 들어갔구나.

00:28:10.010 --> 00:28:12.476
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
정답이 되는 겁니다.

00:28:12.576 --> 00:28:13.958
이해되시겠어요, 여러분?

00:28:14.058 --> 00:28:17.265
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.

00:28:17.365 --> 00:28:22.023
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.

00:28:22.123 --> 00:28:25.856
여러분, 다음 내용은 실전
문제로 들어갈 거예요.

00:28:25.956 --> 00:28:30.459
실전 문제가 지금 우리가 세 개가
들어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.

00:28:30.559 --> 00:28:32.118
15문제만 풀면 됩니다.

00:28:32.218 --> 00:28:33.496
문제 다 풀어보셨나요?

00:28:33.596 --> 00:28:36.581
다 풀어보고 그다음에 보셔야
됩니다, 아시겠죠?

00:28:36.681 --> 00:28:39.108

첫 번째 1번부터 보죠.

00:28:39.208 --> 00:28:43.056

1번, 위 강연을 위해
사전 계획한 내용이다.

00:28:43.156 --> 00:28:44.825

보기의 내용 중 강연에
반영된 것은?

00:28:44.925 --> 00:28:47.495

그러니까 있는 거 찾으라는
얘기입니다, 여러분 그렇죠?

00:28:47.595 --> 00:28:51.146

2번 보면 보기는 강연을 들으며
청중들이 한 생각입니다.

00:28:51.246 --> 00:28:53.949

보기에 드러난 청중들의 듣기
전략을 파악한 내용으로

00:28:54.049 --> 00:28:56.790

적절하지 않은 것을
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28:56.890 --> 00:29:01.987

왼쪽 글의 내용을 먼저 이해하시고,
오른쪽에 여기에 없었던 내용,

00:29:02.087 --> 00:29:04.103

있었던 내용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.

00:29:04.203 --> 00:29:04.987

가볼게요.

00:29:05.087 --> 00:29:09.599

여러분, 저는 오늘 말의 힘에
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.

00:29:09.699 --> 00:29:11.508

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확인하시죠.

00:29:11.608 --> 00:29:12.983

사진까지 보여줬어요.

00:29:13.083 --> 00:29:15.117

이 사진은 모 방송
프로그램의 한 장면입니다.

00:29:15.217 --> 00:29:17.622

사진을 보시면 밥을 담은
두 개의 통이 있습니다.

00:29:17.722 --> 00:29:22.052

그중 한 통에는 고맙습니다라고
써 놓고 칭찬을 하고,

00:29:22.152 --> 00:29:24.358

다른 한 통에는 짜증 나라고
쓰고 욕을 했습니다.

00:29:24.458 --> 00:29:26.233
밥 사진인데.

00:29:26.333 --> 00:29:27.757
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?

00:29:27.857 --> 00:29:29.414
칭찬의 대답을 듣고
웃으며, 그렇습니다.

00:29:29.514 --> 00:29:30.840
여러분의 예상대로입니다.

00:29:30.940 --> 00:29:34.857
다른 사진 보여주며,
사진에서처럼 칭찬을 들은 밥은

00:29:34.957 --> 00:29:38.781
예쁘게 발효가 되었지만, 욕을
들은 밥은 찌어 버렸습니다.

00:29:38.881 --> 00:29:39.761
대단하네요.

00:29:39.861 --> 00:29:41.311
욕을 들은 밥은 찌어 버렸대요.

00:29:41.411 --> 00:29:42.338
말이 되니, 이게?

00:29:42.438 --> 00:29:44.438
뭐 그렇다니까 뭐, 그렇죠?

00:29:44.538 --> 00:29:45.797
또 다른 사례.

00:29:45.897 --> 00:29:47.539
이게 정말 말이 돼?

00:29:47.639 --> 00:29:50.168
한번 해보세요, 여러분.

00:29:50.268 --> 00:29:52.411
또 다른 사례와 관련된
자료를 보실까요?

00:29:52.511 --> 00:29:53.927
말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.

00:29:54.027 --> 00:29:55.882
밥까지 변화시키는 거니까.

00:29:55.982 --> 00:29:57.014
재미있네요.

00:29:57.114 --> 00:29:58.703
다른 사례와 관련된
자료를 보실까요?

00:29:58.803 --> 00:30:02.774
그래프 자료를 보여주면서, 이 자료는
늑음과 관련된 단어를 본 집단과

00:30:02.874 --> 00:30:05.322
젊음과 관련된 단어를 본
집단의 걸음걸이를.

00:30:05.422 --> 00:30:10.762
보통 이런 실험들은
영국에서 많이 하지 않아요?

00:30:10.862 --> 00:30:16.398
영국의 어떤 모 학자에
따르면 진짜 재미있는,

00:30:16.498 --> 00:30:19.559
어떻게 저런 실험을 할까
이런 것들이 많은데.

00:30:19.659 --> 00:30:21.530
이것도 깜짝 놀랐습니다.

00:30:21.630 --> 00:30:26.487
늑음과 젊음과 관련된 단어를 본
집단이 걸음걸이가 달라진대요.

00:30:26.587 --> 00:30:27.609
가볼까요?

00:30:27.709 --> 00:30:30.543
늑음과 관련된 단어를 본
집단은 단어를 보기 전보다

00:30:30.643 --> 00:30:32.209
걸음걸이가 느려졌대요.

00:30:32.309 --> 00:30:35.692
웃어서 죄송한데, 웃음
나는 실험이네요.

00:30:35.792 --> 00:30:37.820
젊음과 관련된 단어를 본
집단은 단어를 보기 전보다

00:30:37.920 --> 00:30:39.421
걸음걸이가 더 빨라졌답니다.

00:30:39.521 --> 00:30:41.261
어떻습니까?

00:30:41.361 --> 00:30:42.706
거짓말 같아요, 그렇지요?

00:30:42.806 --> 00:30:44.965
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
말의 힘이 대단하죠?

00:30:45.065 --> 00:30:47.242
그럼 우리 학교 현장을

한번 보실까요?

00:30:47.342 --> 00:30:49.766

학교 현장을 보여주며
동영상을 틀어줍니다.

00:30:49.866 --> 00:30:50.726

어떻습니까?

00:30:50.826 --> 00:30:52.370

욕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죠?

00:30:52.470 --> 00:30:54.966

이런 환경에서 자란 우리
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?

00:30:55.066 --> 00:30:57.086

어떻게 되겠어요?

00:30:57.186 --> 00:31:01.567

앞처럼 욕 들어먹은 것처럼 밥이
썩은 것처럼 썩어가지 않겠습니까?

00:31:01.667 --> 00:31:03.634

그런 내용이 나오겠죠.

00:31:03.734 --> 00:31:06.610

혹시 앞에서 본 썩은 밥과
같이 되지는 않을까요?

00:31:06.710 --> 00:31:10.006

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학교 현장에서
각 단어를 힘주어 발음하며

00:31:10.106 --> 00:31:14.169

아름답고 고운, 뭐 이런
식으로 하라는 얘기에요.

00:31:14.269 --> 00:31:17.092

말 운동을 대대적으로
펼칠 것을 제안합니다.

00:31:17.192 --> 00:31:19.748

강연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저는
이 아름답고 고운 말 운동의

00:31:19.848 --> 00:31:22.205

몇 가지 실천 방안을 말씀드리는데.

00:31:22.305 --> 00:31:24.263

첫째는 워물 먼저 캠페인입니다.

00:31:24.363 --> 00:31:27.296

즉, 부모님이나 선생님부터 고운
말을 쓰자는 캠페인입니다.

00:31:27.396 --> 00:31:28.495

반성합니다.

00:31:28.595 --> 00:31:31.116

워물이 맑으면 아랫물이

맑은 법이니까요.

00:31:31.216 --> 00:31:33.842
둘째는 칭찬의 날 제정입니다.

00:31:33.942 --> 00:31:35.672
하루 날을 정해 서로
칭찬해주는 겁니다.

00:31:35.772 --> 00:31:37.711
참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죠.

00:31:37.811 --> 00:31:40.816
어휴, 많이 먹네, 뭐 이런 거죠.

00:31:40.916 --> 00:31:43.199
잘 성장하겠어, 이렇게
칭찬해주는 거죠.

00:31:43.299 --> 00:31:45.825
그날 칭찬을 제일 많이 한 학생을
선정해서 표창하는 겁니다.

00:31:45.925 --> 00:31:48.165
마지막으로 가정 교육 강화입니다.

00:31:48.265 --> 00:31:51.231
기본적인 교육은 밥상에서 부모님에
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

00:31:51.331 --> 00:31:55.091
일주일에 3회 이상 온 가족 저녁
같이 먹기 약속 등을 통해서

00:31:55.191 --> 00:31:57.360
가정 교육을 강화하는 겁니다.

00:31:57.460 --> 00:32:00.966
세 가지 실천 방안을 실천해서
아름답고 고운 말을 쓰도록 합시다.

00:32:01.066 --> 00:32:03.090
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.

00:32:03.190 --> 00:32:04.009
감사합니다.

00:32:04.109 --> 00:32:06.562
상당히 재미있는 글이었네요.

00:32:06.662 --> 00:32:08.138
사전 계획한 내용이다.

00:32:08.238 --> 00:32:12.125
강연 내용 중 보기에서 반영된
게 뭐냐, 이겁니다.

00:32:12.225 --> 00:32:14.621
전문가가 나왔나요?

00:32:14.721 --> 00:32:16.516

전문가의 견해가 나오지 않았죠.

00:32:16.616 --> 00:32:19.655
실제로 실행하여 성공한 사례를
문제 해결 방안으로.

00:32:19.755 --> 00:32:22.363
실제 어떤 해결 방안을 실제로
어떻게 했더니 해결됐더라

00:32:22.463 --> 00:32:23.827
이런 내용 없었죠.

00:32:23.927 --> 00:32:25.775
정답 3번입니다, 여러분.

00:32:25.875 --> 00:32:28.204
담화 표지를 사용한다고 했는데.

00:32:28.304 --> 00:32:32.298
담화 표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
담화 표지판이라고 하는 건데.

00:32:32.398 --> 00:32:33.505
표지판이에요.

00:32:33.605 --> 00:32:37.642
첫째, 둘째, 셋째 이런 것들이
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걸

00:32:37.742 --> 00:32:39.763
보여주는 표지판 역할을 하잖아요.

00:32:39.863 --> 00:32:41.471
정답은 3번입니다.

00:32:41.571 --> 00:32:45.683
요약, 정리하며 강연 마무리할 때는
강연 내용을 요약, 정리하지 않아요.

00:32:45.783 --> 00:32:49.015
해결 방안 세 가지가
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.

00:32:49.115 --> 00:32:51.360
경험과 관련된 질문을
하면서, 이런 거 있었나요?

00:32:51.460 --> 00:32:53.575
시작함으로써 제일
처음 부분 보세요.

00:32:53.675 --> 00:32:56.814
제일 처음 부분에 강연을
시작할 때 청중의 경험.

00:32:56.914 --> 00:32:59.790
욕을 들어서 기분 나쁜
적이 있으셨나요?

00:32:59.890 --> 00:33:02.135

이런 식으로 하는 질문이 없었죠.

00:33:02.235 --> 00:33:06.736

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

00:33:06.836 --> 00:33:09.211

강연 들으며 청중들이 한 생각이다.

00:33:09.311 --> 00:33:11.128

보기에 드러난 청중들의 듣기

전략을 파악한 내용으로

00:33:11.228 --> 00:33:14.832

적절하지 않은 것을

골라라 그랬습니다.

00:33:14.932 --> 00:33:19.230

밥을 담은 두 개의 통과 단어를

본 후에 걸음걸이 변화에 대한

00:33:19.330 --> 00:33:21.038

이야기를 근거로 말의

힘을 말하고 있는데.

00:33:21.138 --> 00:33:24.524

어떻게 이 두 개의 실험

결과를 제시하면서 말의 힘을

00:33:24.624 --> 00:33:25.694

일반화할 수 있지?

00:33:25.794 --> 00:33:27.833

적절한 의문 제시라고 할 수 있죠.

00:33:27.933 --> 00:33:30.161

두 실험의 결과가 말의 힘을

일반화할 수 있을 만큼

00:33:30.261 --> 00:33:31.639

신뢰성 있는 자료라 할 수 있을까?

00:33:31.739 --> 00:33:34.245

적절한 문제 제기라고

봅니다, 그렇죠?

00:33:34.345 --> 00:33:35.525

1번 볼게요.

00:33:35.625 --> 00:33:39.240

강연자가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

사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

00:33:39.340 --> 00:33:41.289

점검하면서 들었습니다, 그렇죠?

00:33:41.389 --> 00:33:43.005

이걸 신뢰할 만한가?

00:33:43.105 --> 00:33:46.571

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

있는가라고 문제 제기한 겁니다.

00:33:46.671 --> 00:33:47.574
2번 볼까요?

00:33:47.674 --> 00:33:50.632
매체 자료를 사용하고 질문을
통해 청중들과 교감하면서

00:33:50.732 --> 00:33:53.405
강연을 이어가니 덜 지루하고
내용에 더 집중하게 되네.

00:33:53.505 --> 00:33:55.819
이건 뭐냐면 2번 선택지.

00:33:55.919 --> 00:33:57.678
강연자가 사용한 말하기
방식과 효과.

00:33:57.778 --> 00:33:59.546
말하기 방식은 매체 자료 활용했다.

00:33:59.646 --> 00:34:00.657
효과는 뭐야?

00:34:00.757 --> 00:34:02.687
더 잘 이해하게 되네라고
했으니까 효과가 나왔죠.

00:34:02.787 --> 00:34:04.904
맞습니다.

00:34:05.004 --> 00:34:08.296
그다음에 3번 보면 윗물 먼저
캠페인을 주장하는 거 보니까

00:34:08.396 --> 00:34:11.066
현재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고운
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

00:34:11.166 --> 00:34:12.995
학생들이 부정적 언어생활을
하고 있다고 보는 거네.

00:34:13.095 --> 00:34:15.478
욕과 비난이 난무한 학생들의
언어 습관의 원인을

00:34:15.578 --> 00:34:17.881
선생님과 부모님의 언어생활에서
찾을 근거는 없으므로

00:34:17.981 --> 00:34:20.357
타당하지 못한 거야라고 얘기했는데.

00:34:20.457 --> 00:34:24.604
3번 보면 강연자가 의도적으로
왜곡하여, 3번이 정답이네요.

00:34:24.704 --> 00:34:27.794
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얘기하고

있는 건 아니잖아요.

00:34:27.894 --> 00:34:32.447
왜곡한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
듣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.

00:34:32.547 --> 00:34:35.535
여기에서도 왜곡했다고
보지도 않고요.

00:34:35.635 --> 00:34:36.871
왜곡하지도 않았고요.

00:34:36.971 --> 00:34:38.186
정답 3번입니다.

00:34:38.286 --> 00:34:39.974
칭찬의 날에 가장 많이
칭찬한 학생을 표창한다고?

00:34:40.074 --> 00:34:41.504
누가 얼마나 칭찬했는지
어떻게 알 수 있겠어?

00:34:41.604 --> 00:34:44.201
의도는 좋지만, 현실적으로
실현이 어려운 것 같아.

00:34:44.301 --> 00:34:45.902
실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.

00:34:46.002 --> 00:34:49.649
4번은 강연자가 제안한
방법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

00:34:49.749 --> 00:34:51.064
의문을 제기하며 듣고 있다.

00:34:51.164 --> 00:34:53.577
실현 가능성이 없잖아,
이렇게 제기했으니까 맞죠.

00:34:53.677 --> 00:34:56.712
온 가족 저녁 같이 먹기 약속은
아름답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 것과

00:34:56.812 --> 00:34:58.344
직접적으로 관련된
방안 같지는 않아.

00:34:58.444 --> 00:35:00.298
험한 말을 사용할 때마다
가족끼리 지적을 해준다거나

00:35:00.398 --> 00:35:03.378
사용하지 않으면 상을 주는 식으로
방안을 제시하는 게 좋겠어.

00:35:03.478 --> 00:35:07.973
5번, 문제 해결에 적합한가를
판단하면서 들었으니까 적절하겠죠.

00:35:08.073 --> 00:35:11.963
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

00:35:12.063 --> 00:35:13.192
됐니?

00:35:13.292 --> 00:35:14.921
다음 장 보겠습니다.

00:35:15.021 --> 00:35:16.075
여기까지고요.

00:35:16.175 --> 00:35:17.828
다음 내용 보겠습니다.

00:35:17.928 --> 00:35:20.073
여러분, 3, 4, 5번
문제 한번 풀어볼게요.

00:35:20.173 --> 00:35:23.376
3번 문제 보시면 (가)와 (나)를
통해 알 수 있는 작문의 성격으로

00:35:23.476 --> 00:35:24.814
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35:24.914 --> 00:35:28.612
4번을 보면 ㉠~㉣ 중,
(나)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?

00:35:28.712 --> 00:35:31.958
(나)의 글을 보고 여기 안 나와
있는 걸 찾으라는 뜻입니다.

00:35:32.058 --> 00:35:36.533
5번 보시면 고쳐쓰기의 방안으로 적절하지
않은 것을 찾으라고 얘기했어요.

00:35:36.633 --> 00:35:39.335
우선 상담 게시판에 먼저 보니까요.

00:35:39.435 --> 00:35:44.127
상담 게시판하고 그다음에
㉣는 (가)를 읽은 학생이

00:35:44.227 --> 00:35:45.591
건의 게시판에 올린
글의 초고입니다.

00:35:45.691 --> 00:35:46.823
가볼게요.

00:35:46.923 --> 00:35:50.205
한동안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가
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.

00:35:50.305 --> 00:35:52.650
딱히 지망하는 학과가 있는
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말하면

00:35:52.750 --> 00:35:54.803

어떤 직업을 선택해야
할지도 막막합니다.

00:35:54.903 --> 00:35:58.946

지난번에 있었던 적성검사에서는,
그러니까 애가 지금 막막한

00:35:59.046 --> 00:36:02.371

이유는 바로 뭐냐면 어떤 직업을
선택해야 될지를 막막하다고

00:36:02.471 --> 00:36:03.770

느끼고 있는 거니까요.

00:36:03.870 --> 00:36:06.544

생명 공학자나 의사 같은 직업이
적성에 맞는 것으로 나왔는데,

00:36:06.644 --> 00:36:10.545

사실 전 생물에는 별 관심이 없고
수학 성적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.

00:36:10.645 --> 00:36:15.543

진로랑 자기의 현재상태랑 좀
맞지 않다고 고민하는 거죠.

00:36:15.643 --> 00:36:17.273

그리고 동물을 그리
좋아하지도 않고요.

00:36:17.373 --> 00:36:20.424

어떤 때는 이것도 해보고
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다가도

00:36:20.524 --> 00:36:23.363

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하고 뭔가
뚜렷하게 정하기 힘듭니다.

00:36:23.463 --> 00:36:26.220

목표만 확실히 정해진다면 더 열심히
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

00:36:26.320 --> 00:36:28.196

목표가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.

00:36:28.296 --> 00:36:31.146

어떻게 하면 진로를 명확하게
정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.

00:36:31.246 --> 00:36:32.530

조언 부탁드립니다.

00:36:32.630 --> 00:36:36.613

그래서 지금 ㉠와
같은 초고를 썼어요.

00:36:36.713 --> 00:36:37.984

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.

00:36:38.084 --> 00:36:40.752

얼마 전 학교 홈페이지의 상담
게시판에서 진로 설정에 대한

00:36:40.852 --> 00:36:42.794

고민을 담은 한 학생의 글을
읽고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.

00:36:42.894 --> 00:36:45.952

제 주변에는 아직도 진로를
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고,

00:36:46.052 --> 00:36:48.021

저 역시 한두 가지
희망하는 직업은 있지만,

00:36:48.121 --> 00:36:50.591

그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.

00:36:50.691 --> 00:36:52.596

대부분 학생들이 이런
고민을 하고 있죠.

00:36:52.696 --> 00:36:54.756

물론 학교에서 실시하는 적성
검사를 통해서 어떤 분야가

00:36:54.856 --> 00:36:58.317

적성에 맞는지 참고할 수 있기도
하고, 때때로 진로 탐색에

00:36:58.417 --> 00:36:59.993

도움이 되는 자료나
강연을 듣기도 합니다.

00:37:00.093 --> 00:37:03.069

문제, 3번 문제 같이 볼게요.

00:37:03.169 --> 00:37:05.020

자료를 받거나로 고민다.

00:37:05.120 --> 00:37:09.105

왜 그리냐면 자료나 강연을 듣는다고
하면 강연을 듣는 건 맞죠.

00:37:09.205 --> 00:37:11.183

그러나 자료를 듣는
건 안 되잖아요.

00:37:11.283 --> 00:37:14.997

그래서 자료를 받거나라고
해서 받다라고 하는

00:37:15.097 --> 00:37:17.245

서술어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.

00:37:17.345 --> 00:37:22.260

그래서 1번 선택지, 5번에
1번은 적절하게 고친 거고요.

00:37:22.360 --> 00:37:25.687

그리고 이러한 것만으로

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?

00:37:25.787 --> 00:37:29.909
그리고는 순적, 앞뒤의 연결 관계가
대등하게 연결될 때 쓰는 건데요.

00:37:30.009 --> 00:37:31.549
여기에서는 듣기도 합니다.

00:37:31.649 --> 00:37:35.078
그러나 이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
하는 말이 들어가야겠죠.

00:37:35.178 --> 00:37:39.282
그래서 5번의 2번 보면
그러나로 수정한다, 적절하죠.

00:37:39.382 --> 00:37:43.090
그다음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던
OO 기관의 전문가는

00:37:43.190 --> 00:37:46.075
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
만족도가 80%에 달했다면서

00:37:46.175 --> 00:37:49.270
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
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

00:37:49.370 --> 00:37:51.651
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의지를
다질 수 있다는 계기를

00:37:51.751 --> 00:37:54.656
마련했다고 했습니다라고 했는데.

00:37:54.756 --> 00:37:58.134
㉠을 보면, 5번에 3번.

00:37:58.234 --> 00:38:02.076
3문단의 마지막 부분으로
자리를 옮긴다고 했는데.

00:38:02.176 --> 00:38:06.525
3문단 보시면 3문단의
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.

00:38:06.625 --> 00:38:10.809
마지막 부분에 실제로 얼마 전
어느 신문에 30여 개의 기관 및

00:38:10.909 --> 00:38:14.054
업체와 연계해서 학생들의 직업
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

00:38:14.154 --> 00:38:18.071
기사가 실렸습니까라고 해서 그 기사
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

00:38:18.171 --> 00:38:21.211
이게 여기 마지막 부분으로

나오는 게 적절하겠죠.

00:38:21.311 --> 00:38:24.741

그러니까 3번 선택지도
옳기는 게 적절합니다.

00:38:24.841 --> 00:38:27.193

그다음 학생들의 진로 설정을
위해서 제가 생각하는

00:38:27.293 --> 00:38:31.035

가장 좋은 방법은 직업 체험
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.

00:38:31.135 --> 00:38:31.942

잘 보세요.

00:38:32.042 --> 00:38:36.098

가장 좋은 방법은이라고 했고,
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,

00:38:36.198 --> 00:38:37.200

이렇게 써야 돼요.

00:38:37.300 --> 00:38:39.966

이게 주어, 서술어 호응
관계가 적절하지 않았거든요.

00:38:40.066 --> 00:38:44.797

그래서 5번에 4번 보면 실시하는
것입니다라고 고치는 거죠.

00:38:44.897 --> 00:38:48.678

정답은 4번도 역시 적절합니다.

00:38:48.778 --> 00:38:51.623

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
학생별로 희망하는 직업들을

00:38:51.723 --> 00:38:55.227

직접 체험해 보고 그 직업에
종사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

00:38:55.327 --> 00:38:58.699

기회를 갖는다면 그 직업이 정말로
자신의 직성에 부합하는지

00:38:58.799 --> 00:39:00.954

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00:39:01.054 --> 00:39:04.359

정답 5번에 5번을 보면요.

00:39:04.459 --> 00:39:07.590

가름할로 바꾼다고 했는데.

00:39:07.690 --> 00:39:12.706

여기에서는 뭐냐면 그게 여기
그대로 두는 게 적절합니다.

00:39:12.806 --> 00:39:15.592

부합하는지 아닌지 판단하다,
이런 뜻이니까요.

00:39:15.692 --> 00:39:17.163
가늠하다가 더 적절하거든요.

00:39:17.263 --> 00:39:21.003
그래서 정답이 5번이 정답이고요.

00:39:21.103 --> 00:39:28.694
가름하다는 것은 승부나 이런 것들을
정했을 때 가르다, 이런 뜻 있잖아요.

00:39:28.794 --> 00:39:32.063
가르다, 양쪽을 가르다 할 때
그때 가름하다 이렇게 쓰는 거니까

00:39:32.163 --> 00:39:36.211
가늠하다는 게 측정해보다 이런
뜻이니까 이게 더 적절한 말입니다.

00:39:36.311 --> 00:39:38.024
고치지 않는 게 적절한 거죠.

00:39:38.124 --> 00:39:39.681
단어 뜻을 묻는 문제였어요.

00:39:39.781 --> 00:39:42.746
실제로 얼마 전 어느 신문사에서
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

00:39:42.846 --> 00:39:43.972
기사가 실렸습니다.

00:39:44.072 --> 00:39:47.977
그 프로그램 진행이 바로 여기 ⊖이니까
이것이 이쪽으로 옮기는 게 적절하죠.

00:39:48.077 --> 00:39:50.025
우리 학교에서도 직업
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

00:39:50.125 --> 00:39:53.692
학생들이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,
이를 이루기 위해 저마다

00:39:53.792 --> 00:39:55.394
노력하는 풍토를
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.

00:39:55.494 --> 00:39:57.361
문제 한번 가볼까요?

00:39:57.461 --> 00:39:59.008
3번.

00:39:59.108 --> 00:40:02.153
(가)와 (나)를 통해 알
수 있는 작문의 성격으로

00:40:02.253 --> 00:40:04.650

적절하지 않은 것을
찾으라고 얘기했는데.

00:40:04.750 --> 00:40:08.691

진로에 대한 고민 해결하려는
의도로 작성된 (가)를 통해서

00:40:08.791 --> 00:40:10.928

목표 지향적인 사고 과정이다. 왜?

00:40:11.028 --> 00:40:14.883

고민 해결을 위해서 글을 쓴 거니까
목표 지향적인 사고 과정이다,

00:40:14.983 --> 00:40:15.877

적절하죠.

00:40:15.977 --> 00:40:19.230

2번 보면 학생들의 진로 설정 문제에
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

00:40:19.330 --> 00:40:21.278

(나)를 통해서, 해결 과정이다.

00:40:21.378 --> 00:40:24.297

당연히 해결 과정이니까
해결 과정의 글쓰기 단계가

00:40:24.397 --> 00:40:26.300

바로 작문인 걸 알 수 있겠죠.

00:40:26.400 --> 00:40:29.478

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건의하여
학생들의 뚜렷한 목표 설정과

00:40:29.578 --> 00:40:32.341

노력을 기대하고 있는 (나)를
통해서 사회적 실천 행위다.

00:40:32.441 --> 00:40:36.485

왜? 학생들이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
해서 변화를 주고자 하는 거니까

00:40:36.585 --> 00:40:39.713

개인적인 글이 아니라 학생들
전체를 위한 글이니까

00:40:39.813 --> 00:40:41.922

사회적 실천 행위임을
나타내고 있다.

00:40:42.022 --> 00:40:42.932

적절하죠.

00:40:43.032 --> 00:40:45.444

자신의 고민에 대해 조언해
주거나 건의를 들어줄 대상을

00:40:45.544 --> 00:40:49.906

염두에 두고 작성된 (가)와 (나)를
통해서 작문은 의사소통 행위다.

00:40:50.006 --> 00:40:52.978

왜? 조언을 해주고 거기에
대해서 건의해주는 거니까

00:40:53.078 --> 00:40:54.615

의사소통이 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.

00:40:54.715 --> 00:40:57.079

그러니까 의사소통 행위임을
알 수 있다, 적절하죠.

00:40:57.179 --> 00:41:00.330

5번을 보면 진로 설정과
관련된 의견을 주고받으며

00:41:00.430 --> 00:41:03.872

직업 체험이라는 새로운 대안을
만들어나가는 (가)와 (나)를 통해서

00:41:03.972 --> 00:41:08.695

작문은 상호 교섭적인 성격을
지님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.

00:41:08.795 --> 00:41:13.597

여기에서는 글쓴이가 새로운 대안을
만들어나가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.

00:41:13.697 --> 00:41:17.011

그래서 직업 체험이라는 새로운
대안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

00:41:17.111 --> 00:41:21.020

물론 작문이라고 하는 건 상호
교섭적인 성격인 건 맞아요.

00:41:21.120 --> 00:41:25.000

그러나 새로운 대안을 만든 게 아니기
때문에 여기에서는 틀린 거예요.

00:41:25.100 --> 00:41:26.733

그래서 정답이 5번이 정답이죠.

00:41:26.833 --> 00:41:30.429

보기의 ㉠~㉣ 중에서 (나)에
반영되지 않은 것은?

00:41:30.529 --> 00:41:32.994

(나)에 나와 있지 않은
걸 찾으라는 건데요.

00:41:33.094 --> 00:41:36.468

설득을 위한 글을 쓰기 위해서
주장하고자 하는 의견이나 관점을

00:41:36.568 --> 00:41:38.960

분명히 하고, 명확하게
제시를 하고 있었습시다.

00:41:39.060 --> 00:41:41.954

그다음에 논거를 제시하고 있었고요.

00:41:42.054 --> 00:41:43.327
그다음에 이게 틀렸어요.

00:41:43.427 --> 00:41:47.199
㉔를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
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.

00:41:47.299 --> 00:41:50.608
어디 어디에서 활용되는
내용이라고 해서.

00:41:50.708 --> 00:41:53.686
그다음에 다양한 매체라고
하는 것도 나오지 않았고요.

00:41:53.786 --> 00:41:57.870
그다음에 출처 또한 명확하게 밝히지
않았으니까 정답이 3번입니다.

00:41:57.970 --> 00:42:01.668
내용 전개가 적절하게 됐는지
확인하는 문제예요.

00:42:01.768 --> 00:42:04.886
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거나
속담이나 관용어를 활용해서

00:42:04.986 --> 00:42:08.473
독자의 이해를 돕는 전략을
구사한다고 했는데.

00:42:08.573 --> 00:42:12.814
백문이 불여일견, 이런 것들이 바로
관용적인 의미를 사용한 거죠.

00:42:12.914 --> 00:42:16.028
설의법 같은 표현법, 의문문이
나오는 게 있습니까?

00:42:16.128 --> 00:42:18.697
두 번째 단락에 충분하다고
할 수 있습니까?

00:42:18.797 --> 00:42:20.744
이게 바로 설의법이 활용된 거죠.

00:42:20.844 --> 00:42:22.024
5번 문제도 해결했죠?

00:42:22.124 --> 00:42:25.443
다음 내용 실전 두 번째
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

00:42:25.543 --> 00:42:29.056
모의 협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.

00:42:29.156 --> 00:42:32.940
첫 번째 1번 보면 협상 내용에
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42:33.040 --> 00:42:34.679

시작, 조정, 해결 단계인데.

00:42:34.779 --> 00:42:38.489

각각의 단계가 적절하게 확인됐는지
그것만 보시면 되겠고.

00:42:38.589 --> 00:42:42.000

협상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
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42:42.100 --> 00:42:43.885

시청 측과 주민 측이 나왔는데.

00:42:43.985 --> 00:42:45.603

각각 무슨 말을 할 거예요.

00:42:45.703 --> 00:42:49.791

그 말하기가 어떤 의도를
가지고 말을 하는지,

00:42:49.891 --> 00:42:53.334

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을 하는지
그게 적절하게 연결된 걸 확인해라

00:42:53.434 --> 00:42:54.367

이런 뜻입니다.

00:42:54.467 --> 00:42:57.842

3번은 위 협상이 끝난 다음에
협상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으로

00:42:57.942 --> 00:42:59.002

가장 적절한 것은?

00:42:59.102 --> 00:43:04.933

마지막 평가로 확실하게 평가된 내용을
한번 찾아봐라, 이런 뜻입니다.

00:43:05.033 --> 00:43:09.273

시청은 각종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
가로등과 CCTV를 골목에

00:43:09.373 --> 00:43:12.566

설치하기 위해서 주민과
협상을 하려고 한다.

00:43:12.666 --> 00:43:15.094

시청 측은 주민 반발을
최소화하면서도

00:43:15.194 --> 00:43:18.937

가로등과 CCTV를 설치하려고
하고, 협상이 필요한 거죠.

00:43:19.037 --> 00:43:22.159

주민은 가로등과 CCTV의
설치로 인한 피해를 줄이면서

00:43:22.259 --> 00:43:26.379

보상을 받으려고 하고

있다고 얘기합니다.

00:43:26.479 --> 00:43:28.730
모의 협상을 보면 시청 측입니다.

00:43:28.830 --> 00:43:32.174
시청 측은 우리 시에서는 증가하고
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

00:43:32.274 --> 00:43:35.195
마을을 골목마다 가로등과
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.

00:43:35.295 --> 00:43:39.185
공익적 차원이니까 협조
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했어요.

00:43:39.285 --> 00:43:43.029
그러면 공익적 차원으로 무조건 다 양보할
수는 없는 거잖아요, 주민들이.

00:43:43.129 --> 00:43:46.468
그래서 그 정도로 하려면
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해달라

00:43:46.568 --> 00:43:48.474
이런 요구를 하기
위해서 모인 거예요.

00:43:48.574 --> 00:43:50.978
주민 측, 만약 골목에
가로등과 CCTV가 설치된다면

00:43:51.078 --> 00:43:54.601
밤마다 가로등의 불빛으로
인한 불편과 CCTV로 인한

00:43:54.701 --> 00:43:57.244
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므로
주민들은 이에 반대합니다.

00:43:57.344 --> 00:43:58.747
우선 반대 입장을 얘기하죠.

00:43:58.847 --> 00:44:02.611
시청 측이 가로등과 CCTV를
마을 골목에 설치하면

00:44:02.711 --> 00:44:06.750
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밤마다
빛 공해로 고통받을 수 있고,

00:44:06.850 --> 00:44:08.287
인정하는 거죠.

00:44:08.387 --> 00:44:11.273
CCTV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
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.

00:44:11.373 --> 00:44:15.137
하지만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

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.

00:44:15.237 --> 00:44:17.707

공익적 측면을 계속 강조하고
있는 게 시청 측이죠.

00:44:17.807 --> 00:44:21.190

시청 측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가로등과
CCTV 설치를 추진하려는 것을

00:44:21.290 --> 00:44:22.444

잘 이해합니다.

00:44:22.544 --> 00:44:24.862

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
하루 이틀이 아니라

00:44:24.962 --> 00:44:28.239

매일 불편을 겪어야 되므로
쉽게 허락하기가 어렵습니다.

00:44:28.339 --> 00:44:30.929

일종의 생존권과 관련된
문제라 할 수 있죠.

00:44:31.029 --> 00:44:32.416

대책부터 듣고 싶습니다.

00:44:32.516 --> 00:44:34.273

어떤 대책을 준비하셨나요?

00:44:34.373 --> 00:44:39.848

시청 측이 일단 빛 공해와 관련해서는
가로등의 주택 쪽 부분에

00:44:39.948 --> 00:44:43.782

불투명 스티커를 부착해서 골목
쪽으로만 빛이 가게 하면

00:44:43.882 --> 00:44:47.839

우리 주민 여러분께서는 빛 공해로부터
상당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.

00:44:47.939 --> 00:44:50.928

스티커 이렇게 이용하는
겁니다, 불투명 스티커.

00:44:51.028 --> 00:44:53.539

또한 CCTV는 엄격한
원칙하에서 매우 제한적으로

00:44:53.639 --> 00:44:58.867

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사생활 보호에
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00:44:58.967 --> 00:45:01.153

그런데 믿을 수 없잖아요, 그렇죠?

00:45:01.253 --> 00:45:04.202

시청에서 그와 같은 성의
있는 대책을 세우셨다니

00:45:04.302 --> 00:45:05.817
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.

00:45:05.917 --> 00:45:09.377
그러나 그런 대책을 세운다고
해도 주민들의 불편을 완벽하게

00:45:09.477 --> 00:45:11.365
해소할 수는 없겠죠.

00:45:11.465 --> 00:45:14.492
실질적인 보상을 해주어야
된다고 봅니다.

00:45:14.592 --> 00:45:17.213
일단 시청 측에서는 주민들이
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

00:45:17.313 --> 00:45:19.397
마을 공원을 보수해드릴 생각입니다.

00:45:19.497 --> 00:45:21.136
그게 바로 이제 보상의 차원이겠죠.

00:45:21.236 --> 00:45:24.547
또한 자녀분들을 위해서 간이
놀이터도 새로 설치할 계획이고요.

00:45:24.647 --> 00:45:28.478
공원 보수는 좋습니다만 간이
놀이터는 모든 주민에게 돌아가는

00:45:28.578 --> 00:45:30.070
실질적인 혜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.

00:45:30.170 --> 00:45:33.091
왜? 놀이터, 어린아이들 있는
집안만 도움이 되잖아요.

00:45:33.191 --> 00:45:36.710
간이 놀이터 대신에 세금 감면과
같은 실질적인, 세금 감면해달래요.

00:45:36.810 --> 00:45:39.203
보상을 고려해 주십시오.

00:45:39.303 --> 00:45:40.936
세금 감면은 곤란합니다.

00:45:41.036 --> 00:45:43.943
첫 번째 제안했던 게
받아들여지지 않나 봐요.

00:45:44.043 --> 00:45:47.233
세금은 법에 의해 징수하는
것이므로 시청이 임의로

00:45:47.333 --> 00:45:49.037
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
아니기 때문입니다.

00:45:49.137 --> 00:45:50.818
우리 역할에서 벗어난 겁니다.

00:45:50.918 --> 00:45:54.399
세금 감면 대신에 지금까지
구입해서 쓰시던 쓰레기봉투를

00:45:54.499 --> 00:45:57.242
시청에서 무상으로 제공해
드리는 건 어떨겠습니까?

00:45:57.342 --> 00:45:58.501
쓰레기봉투 제공?

00:45:58.601 --> 00:46:00.559
그러면 돈 안 드는 거니까.

00:46:00.659 --> 00:46:03.555
세금 감면은 시청 측에서 실행하기
어렵다는 점을 알겠습니다.

00:46:03.655 --> 00:46:07.390
세금 감면 대신에 쓰레기봉투 무상
제공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.

00:46:07.490 --> 00:46:09.802
협상의 극적 타결이 이루어집니다.

00:46:09.902 --> 00:46:13.103
아울러 폐가전을 처리할
때 그 처리 비용도,

00:46:13.203 --> 00:46:15.759
하나 들어주니까 하나
더 요구합니다.

00:46:15.859 --> 00:46:18.224
그 처리 비용도 감면해 주십시오.

00:46:18.324 --> 00:46:19.459
그렇게 하겠습니다.

00:46:19.559 --> 00:46:21.024
통 크게 다 인정했습니다.

00:46:21.124 --> 00:46:24.216
내일부터 동사무소를 통해
쓰레기봉투를 지급해 드리고

00:46:24.316 --> 00:46:27.549
폐가전을 처리하실 때에는
담당 부서에 연락하시면

00:46:27.649 --> 00:46:29.334
비용을 감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00:46:29.434 --> 00:46:33.169
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부터 가로등과
CCTV 설치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.

00:46:33.269 --> 00:46:35.099
이렇게 합의를 했죠.

00:46:35.199 --> 00:46:38.269
협상 진행 과정을 도식화할
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

00:46:38.369 --> 00:46:39.942
적절하지 않은 겁니다.

00:46:40.042 --> 00:46:41.117
1번 볼까요?

00:46:41.217 --> 00:46:43.495
상대측 발언, 기본
입장 처음에 확인했죠.

00:46:43.595 --> 00:46:47.640
그다음에 두 번째는 논리적인
허점을 공략해서 상대를

00:46:47.740 --> 00:46:50.200
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그랬는데
논리적 허점이 아니라

00:46:50.300 --> 00:46:53.610
논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서로의
입장 차이만 나온 거 있잖아요.

00:46:53.710 --> 00:46:56.258
논리적 허점, 그거는
말이 안 되는 겁니다.

00:46:56.358 --> 00:46:58.496
이렇게 논리적 허점을
공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

00:46:58.596 --> 00:47:01.193
실제로 부분 부분 인정하고
있는 내용도 있으니까요.

00:47:01.293 --> 00:47:03.447
논리적 허점을 공략하고
있는 건 틀렸죠.

00:47:03.547 --> 00:47:05.366
구체적 방안 제시했고요.

00:47:05.466 --> 00:47:07.522
검토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.

00:47:07.622 --> 00:47:10.574
제시한 대안들을 정리하면서
마지막 합의를 하고 있죠.

00:47:10.674 --> 00:47:11.706
적절합니다.

00:47:11.806 --> 00:47:14.452
협상에 나타난 협상 참여자의
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

00:47:14.552 --> 00:47:15.907
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.

00:47:16.007 --> 00:47:18.805
1번, 시청 측은
공익적 차원입니다.

00:47:18.905 --> 00:47:19.807
계속 얘기했잖아요.

00:47:19.907 --> 00:47:21.674
검토해 보십시오,
이렇게 얘기했으니까.

00:47:21.774 --> 00:47:26.524
절차상의 불가능을 근거로 주민
측의 요구 수용하지 않고 있다.

00:47:26.624 --> 00:47:27.423
뭔데?

00:47:27.523 --> 00:47:28.678
세금 감면이잖아요.

00:47:28.778 --> 00:47:31.640
주민 측이 제기한 문제를
인정하고, 사생활 침해됩니다,

00:47:31.740 --> 00:47:34.113
생존권 걸린 문제입니다,
인정하고요.

00:47:34.213 --> 00:47:35.855
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죠.

00:47:35.955 --> 00:47:38.798
보상 차원의 문제를
해결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

00:47:38.898 --> 00:47:39.864
맞고요.

00:47:39.964 --> 00:47:42.927
주민 측은 시청 측이 제시한
내용에 자신들의 의견을 추가해서

00:47:43.027 --> 00:47:44.439
대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.

00:47:44.539 --> 00:47:47.541
추가한 게 바로 뭐냐면
폐기물인가, 뭐였죠?

00:47:47.641 --> 00:47:50.997
폐가전 처리 비용을
감면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47:51.097 --> 00:47:55.286
결국 시청 측이 제시한 내용이
실질적인 혜택이 아니라는 이유로

00:47:55.386 --> 00:47:56.552
협상 거절한 게 아니잖아요.

00:47:56.652 --> 00:47:57.449
문제 너무 쉽네요.

00:47:57.549 --> 00:47:58.282
정답 5번입니다.

00:47:58.382 --> 00:48:00.976
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고
얘기했잖아요, 그렇죠?

00:48:01.076 --> 00:48:05.761
협상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
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얘기했는데.

00:48:05.861 --> 00:48:09.664
정답은 4번 보시면
결국 타협했잖아요.

00:48:09.764 --> 00:48:13.383
그러니까 양측은 갈등 해결의
의사를 가지고 조정하고

00:48:13.483 --> 00:48:15.412
타협을 결국 했으니까요.

00:48:15.512 --> 00:48:17.710
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.

00:48:17.810 --> 00:48:19.742
재담을 활용한 거, 틀렸고요.

00:48:19.842 --> 00:48:21.965
주변 이야기 얘기하고
이런 거 없잖아요.

00:48:22.065 --> 00:48:23.514
제압하고 있는 거 없었고요.

00:48:23.614 --> 00:48:25.941
판정단에 의해서 가려진
것도 아니고.

00:48:26.041 --> 00:48:28.072
재협상 요구하는 거 없었습니다.

00:48:28.172 --> 00:48:30.799
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

00:48:30.899 --> 00:48:33.074
4번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48:33.174 --> 00:48:36.204
4번 문제 보시면 보기
자료를 접한 다음에

00:48:36.304 --> 00:48:39.620
애완동물의 유기 문제에 대한,

버리는 거 있잖아요.

00:48:39.720 --> 00:48:42.191

유기 문제에 대해서 글을
작성하기 위해 보기 2와 같이

00:48:42.291 --> 00:48:44.409

개요를 작성했는데, 보기
2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

00:48:44.509 --> 00:48:47.880

개요 수정 계획으로 적절하지
않은 것을 고르라고 얘기했어요.

00:48:47.980 --> 00:48:51.515

예방 접종이나 사료 등 애완동물을
키우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죠.

00:48:51.615 --> 00:48:55.533

키우던 애완동물을 아무 데나
버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.

00:48:55.633 --> 00:48:58.368

버려진 애완동물은 사람에게
질병을 옮기기도 하고,

00:48:58.468 --> 00:49:00.073

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.

00:49:00.173 --> 00:49:03.445

유기 동물 수용 시설이 있기는
하지만, 그 수가 부족하고,

00:49:03.545 --> 00:49:06.151

시설의 관리 비용을 줄이고자 동물을
강제로 안락사시키는 경우가

00:49:06.251 --> 00:49:09.269

늘면서 살 권리에 대한
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00:49:09.369 --> 00:49:12.007

자료 2를 보니까 동물의 보호와
유기, 유실 방지를 위해

00:49:12.107 --> 00:49:14.527

전국적인 동물 등록제가
시행되고 있습니다.

00:49:14.627 --> 00:49:19.021

누구 집 개, 이렇게 쓰여 있으면
함부로 버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.

00:49:19.121 --> 00:49:22.453

동물 등록제란 주인의 이름,
연락처, 애완동물의 정보가 입력된

00:49:22.553 --> 00:49:26.496

전자칩을 피부밑에 이식해서 주인이
애완동물을 잃어버리더라도

00:49:26.596 --> 00:49:28.954

빠르고 쉽게 찾을 수
있는 제도입니다.

00:49:29.054 --> 00:49:31.548

버려지는 동물로 인한 문제를
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

00:49:31.648 --> 00:49:35.159

제도 교육에서 일찍부터 동물도
하나의 소중한 생명이라고 하는

00:49:35.259 --> 00:49:37.606

생명 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
실시해야 된다.

00:49:37.706 --> 00:49:41.050

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
보호 단체나 수의사 협회에서

00:49:41.150 --> 00:49:44.168

부분적으로 생명 교육을 실시하고
있을 뿐, 체계적이고 지속적인

00:49:44.268 --> 00:49:47.742

제도 교육이 거의
이루어지지 않고 있죠.

00:49:47.842 --> 00:49:51.371

보기 1을 보니까
개요표가 나왔는데요.

00:49:51.471 --> 00:49:54.341

이 개요를 바탕으로 해서
수정해 봐라, 이런 겁니다.

00:49:54.441 --> 00:49:55.854

윗글을 바탕으로 해서.

00:49:55.954 --> 00:49:56.742

1번 볼까요?

00:49:56.842 --> 00:49:59.397

2-1-나는 어디입니까?

00:49:59.497 --> 00:50:03.204

2-1-나는 이거죠,
이거 한번 봅시다.

00:50:03.304 --> 00:50:06.928

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
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

00:50:07.028 --> 00:50:12.197

유기견 애완동물의 관리 문제
발생으로 바꾼다고 했는데.

00:50:12.297 --> 00:50:15.095

애완동물 유기 문제점입니다.

00:50:15.195 --> 00:50:16.864

인한 피해가 있고요.

00:50:16.964 --> 00:50:21.336
애완동물 안락사의 문제가 아니고
된다면 애완동물 관리를

00:50:21.436 --> 00:50:23.623
어떻게 할 것인가의
문제가 나왔으니까

00:50:23.723 --> 00:50:28.042
나를 유기된 애완동물의 관리
문제 발생으로 바꾼다.

00:50:28.142 --> 00:50:29.661
윗글에 나와 있으니까요.

00:50:29.761 --> 00:50:31.703
1번 선택지는 적절하죠.

00:50:31.803 --> 00:50:33.079
2번을 볼까요?

00:50:33.179 --> 00:50:37.003
2번 보시면 애완동물을 버리는
것은 개인의 경제 상황과도

00:50:37.103 --> 00:50:38.124
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.

00:50:38.224 --> 00:50:39.603
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으니까.

00:50:39.703 --> 00:50:42.054
2-2의 하위 항목에 비용 증가.

00:50:42.154 --> 00:50:46.619
2-2에 유기하는 원인에
소유물로 본다,

00:50:46.719 --> 00:50:50.231
어려움에 대한 고민 부족이
있고, 그다음에 비용 문제도

00:50:50.331 --> 00:50:55.459
들어 가야 되니까 2번 문제처럼
개요를 수정해도 되겠죠.

00:50:55.559 --> 00:51:01.917
2-3-가는 생명 존중 관련
교육 강화라고 얘기했잖아요.

00:51:02.017 --> 00:51:06.551
주제를 고려해서 생명에 대한
가정에서의 교육 부재로

00:51:06.651 --> 00:51:08.635
대체해야 된다고 했는데.

00:51:08.735 --> 00:51:12.118
가정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런

교육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.

00:51:12.218 --> 00:51:16.722

가정에서, 여기에서 관련
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면

00:51:16.822 --> 00:51:20.097

가정이나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,
아까 유치원에서 해야 된다고,

00:51:20.197 --> 00:51:23.220

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
제도 교육에서 일찍부터

00:51:23.320 --> 00:51:27.714

교육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게
가정에서의 교육 부재 때문에

00:51:27.814 --> 00:51:29.573

일어나는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.

00:51:29.673 --> 00:51:32.197

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정답입니다.

00:51:32.297 --> 00:51:38.858

그다음에 2-3-나는 이용할 수
있는 시설 확대라고 했는데.

00:51:38.958 --> 00:51:41.450

주제와 관련성 부족하죠,
유기 동물이니깐.

00:51:41.550 --> 00:51:44.233

동물 등록제와 같은 행정적
조치, 본문에 나와 있죠.

00:51:44.333 --> 00:51:47.037

버려진 동물을 위한 시설이
부족하다 그랬으니까 2-3에서는,

00:51:47.137 --> 00:51:52.754

해결방안에서는 보호 시설 확충
항목을 더 추가하면 적절하겠죠.

00:51:52.854 --> 00:51:56.636

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

00:51:56.736 --> 00:51:57.724

문제 보겠습니다.

00:51:57.824 --> 00:51:58.868

5번 볼게요.

00:51:58.968 --> 00:52:00.335

세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52:00.435 --> 00:52:02.723

우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
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한다.

00:52:02.823 --> 00:52:04.791

정부 부서 및 관련 단체입니다.

00:52:04.891 --> 00:52:08.396

독자는 뭐냐면 정부 부서나
관련 단체가 독자니까요.

00:52:08.496 --> 00:52:11.628

다가올 우주 시대에 대비해서
이해가 필요하다는 적극적인

00:52:11.728 --> 00:52:13.586

인식이 부족한 게 문제예요.

00:52:13.686 --> 00:52:16.020

우주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
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게

00:52:16.120 --> 00:52:18.602

바로 문제겠죠, 이
부서하고 단체가.

00:52:18.702 --> 00:52:21.285

그러면 전략을 수립할 때
어떻게 해야 되냐면

00:52:21.385 --> 00:52:24.970

우주 개발 선진국의 전문 인력
양성 프로그램을 소개해서

00:52:25.070 --> 00:52:27.205

우리나라도 우주 개발
전문, 밑줄 쳐 볼게요.

00:52:27.305 --> 00:52:30.744

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
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.

00:52:30.844 --> 00:52:33.126

이건 전체 주제와
맞지 않죠, 여러분.

00:52:33.226 --> 00:52:36.810

전체 주제는 바로 뭐냐면
청소년들이 대비해야 된다,

00:52:36.910 --> 00:52:39.209

다가올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.

00:52:39.309 --> 00:52:43.714

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게 우주
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지

00:52:43.814 --> 00:52:47.183

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얘기를
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.

00:52:47.283 --> 00:52:50.153

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

00:52:50.253 --> 00:52:52.951

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

00:52:53.051 --> 00:52:55.220
뒤에 내용은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.

00:52:55.320 --> 00:52:56.763
안 봐도 돼요, 여러분.

00:52:56.863 --> 00:52:58.545
실전 문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.

00:52:58.645 --> 00:53:00.375
1번, 2번, 3번 볼게요.

00:53:00.475 --> 00:53:03.415
참여자 역할을 설명했을 때
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53:03.515 --> 00:53:06.779
2번은 활용할 수 있는 입장과 방안을
적절하게 짚지은 걸 찾아라.

00:53:06.879 --> 00:53:11.107
찬성 2의 발언과 관련해서 토론의
사회자가 ㉠에서 할 말로

00:53:11.207 --> 00:53:13.062
적절한 것을 찾아라,
이런 내용입니다.

00:53:13.162 --> 00:53:14.198
가볼게요.

00:53:14.298 --> 00:53:17.291
구청에서 공터 한 칸을 학생들이
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

00:53:17.391 --> 00:53:19.597
활용할 계획이라며 의견을
모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

00:53:19.697 --> 00:53:22.722
수목원을 조성하자는 의견이
있는데 토론하고자 합니다.

00:53:22.822 --> 00:53:25.942
찬성 1은 공간을
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.

00:53:26.042 --> 00:53:28.583
직접 살펴보고 생태를
관찰할 기회가 많아요.

00:53:28.683 --> 00:53:31.425
수목원 조성을 통해서 학생들이
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

00:53:31.525 --> 00:53:33.776
구청 공터를 자주 이용하도록
해야 할 것입니다.

00:53:33.876 --> 00:53:35.491

교육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

00:53:35.591 --> 00:53:36.706
그러니까 찬성하는 거죠.

00:53:36.806 --> 00:53:39.459
반대는 수목원을 조성하려면
공사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,

00:53:39.559 --> 00:53:41.560
조성 이후에도 관리
비용이 들어갑니다.

00:53:41.660 --> 00:53:43.857
구청이 부담하는 데는
한계가 있을 겁니다.

00:53:43.957 --> 00:53:44.932
반대 입장이에요.

00:53:45.032 --> 00:53:48.027
어떤 수목원은 특이한 식물을 재배해서
언론에도 널리 보도되었습니다.

00:53:48.127 --> 00:53:51.375
이 부분은 애들아, 수목원
찬성, 반대에 대한 내용과

00:53:51.475 --> 00:53:52.820
관련이 없는 내용이잖아요.

00:53:52.920 --> 00:53:54.916
그러니까 사회자가
뭔가 얘기를 하겠죠.

00:53:55.016 --> 00:53:58.024
반대 2, 수목원은 공사
기간이 오래 걸립니다.

00:53:58.124 --> 00:54:00.317
따라서 공터에 수목원을
조성한다면 오랫동안 소음이나

00:54:00.417 --> 00:54:01.881
먼지 때문에 고생할 것입니다.

00:54:01.981 --> 00:54:05.627
수목원 조성으로 이익보다 피해가
더 심할 수 있습니다.

00:54:05.727 --> 00:54:09.146
그랬더니 사회자가 네, 수목원을
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

00:54:09.246 --> 00:54:11.163
수목원의 교육적 효과를
근거로 제시했고,

00:54:11.263 --> 00:54:14.343
조성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
고비용과 긴 공사 기간으로

00:54:14.443 --> 00:54:16.490
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.

00:54:16.590 --> 00:54:18.196
여기까지가 입론이에요.

00:54:18.296 --> 00:54:19.299
이제 반론 나옵니다.

00:54:19.399 --> 00:54:21.430
공터는 유용한 목적으로
사용되어야 합니다.

00:54:21.530 --> 00:54:24.487
토론을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
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,

00:54:24.587 --> 00:54:26.460
문화 예술 공간이 부족하다,

00:54:26.560 --> 00:54:29.578
학교 주변에 문화 예술 공간을 마련할
필요가 있다, 74.8%입니다.

00:54:29.678 --> 00:54:32.751
그러니까 문화 예술 공간이
필요하다는 입장이죠.

00:54:32.851 --> 00:54:35.500
학교에도 강당이나 체육관 등
문화 예술 공간이 있어요.

00:54:35.600 --> 00:54:37.904
그러니까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요?

00:54:38.004 --> 00:54:39.902
문화 예술 공간이
부족하다는 의견은 제대로

00:54:40.002 --> 00:54:43.997
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된
겁니다라고 반론을 하고 있죠.

00:54:44.097 --> 00:54:46.565
방과 후에는 강당이나
체육관을 이용하기 어려워요.

00:54:46.665 --> 00:54:49.709
반대 1의 입장은 방과 후에도
이용할 수 있는 강당이나

00:54:49.809 --> 00:54:51.801
체육관을 공터에
설치하자는 것입니다.

00:54:51.901 --> 00:54:54.084
설치는 수목원 조성보다
공사비 적게 들어요.

00:54:54.184 --> 00:54:57.060

조성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요.

00:54:57.160 --> 00:54:59.523

수목원은 학업 스트레스를
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,

00:54:59.623 --> 00:55:01.309

생태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.

00:55:01.409 --> 00:55:03.680

수목원은 교육적 효과가
많으니까 유용합니다.

00:55:03.780 --> 00:55:04.772

토론 들어봤어요.

00:55:04.872 --> 00:55:06.005

관정을 부탁드립니다.

00:55:06.105 --> 00:55:09.649

다른 배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
관정을 하는 겁니다.

00:55:09.749 --> 00:55:15.502

참여자의 역할을 설명했을 때 적절하지
않은 것을 찾으라고 얘기했는데.

00:55:15.602 --> 00:55:17.433

5번을 보시면요.

00:55:17.533 --> 00:55:24.170

찬성 1은 반대 1의 논거에 대해서
지금 현재도 많다고 얘기했잖아요.

00:55:24.270 --> 00:55:29.921

그러니까 양의 검증을
하고 있다고 했는데.

00:55:30.021 --> 00:55:34.440

찬성 1을 보면, 지금 뭐냐면
지금 현재도 많아요.

00:55:34.540 --> 00:55:38.356

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
문제 아닙니까, 이렇게 얘기했어요.

00:55:38.456 --> 00:55:41.131

그러니까 이거는 양의 검증,
양이 문제가 아니라

00:55:41.231 --> 00:55:43.871

활용 여부를 문제
삼고 있는 거니까요.

00:55:43.971 --> 00:55:46.703

양의 검증을 하고 있다, 이렇게
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.

00:55:46.803 --> 00:55:50.922

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인데.

00:55:51.022 --> 00:55:53.525

그리고 또 하나는 양의
검증이라고 하는 것은

00:55:53.625 --> 00:55:56.965

양이 얼마나 된다, 이런 의미도
있겠지만 또 하나 결정적인 건

00:55:57.065 --> 00:56:02.032

양의 격률이라고 해서 논거가
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.

00:56:02.132 --> 00:56:06.457

여기는 논거가 적절한지,
논거가 활용되고 있는지

00:56:06.557 --> 00:56:07.641

이걸 활용하는 거거든요.

00:56:07.741 --> 00:56:10.488

그러니까 반론을 할 때
논거로써 적절하지 않습니다.

00:56:10.588 --> 00:56:15.710

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
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.

00:56:15.810 --> 00:56:18.555

사회자는 입장 정리했고요.

00:56:18.655 --> 00:56:21.592

그다음에 반대 1은 자료
제시한 것도 나왔었어요.

00:56:21.692 --> 00:56:24.026

그다음에 보충하고 있는
내용도 나왔었죠.

00:56:24.126 --> 00:56:27.102

활용할 수 있는 입장과 안을
적절하게 짚지은 것은?

00:56:27.202 --> 00:56:30.519

수목원 체험 활동은 정서 함양과
인성 계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

00:56:30.619 --> 00:56:33.439

사람들의 정서 순화에도
큰 영향을 미칩니다.

00:56:33.539 --> 00:56:36.320

관찰하며 아름다움과
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.

00:56:36.420 --> 00:56:39.687

입장과 방안인데, 토론에서 활용할
수 있는 입장과 방안인데요.

00:56:39.787 --> 00:56:42.001

이거는 긍정적인 입장이잖아요.

00:56:42.101 --> 00:56:44.821

그러니까 당연히 찬성
입장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.

00:56:44.921 --> 00:56:47.116

반대 입장에서 이걸 활용할
수는 없는 거니까.

00:56:47.216 --> 00:56:51.366

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서 순화하고
그다음에 자연의 아름다움과

00:56:51.466 --> 00:56:52.384

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.

00:56:52.484 --> 00:56:55.194

정서 함양, 인성 계발이니까 여기
그 내용이 있는지 보면 되겠죠.

00:56:55.294 --> 00:56:56.787

인성 교육의 효과가
크다는 점을 들어서

00:56:56.887 --> 00:56:59.271

수목원 교육에 널리
활용할 수 있다.

00:56:59.371 --> 00:57:00.706

정답, 1번이 정답이겠죠.

00:57:00.806 --> 00:57:03.734

그다음에 ㉠에서 할 말로
가장 적절한 것은?

00:57:03.834 --> 00:57:09.365

아까 뭐였냐면 앞에 언론에 널리
보도되었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.

00:57:09.465 --> 00:57:14.043

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답 몇 번이냐면
논제에서 벗어난 내용입니다.

00:57:14.143 --> 00:57:15.390

관련 없는 내용이었잖아요.

00:57:15.490 --> 00:57:18.410

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
정답이 되겠죠.

00:57:18.510 --> 00:57:20.881

앞에서는 특이한 식물이나 아니냐

00:57:20.981 --> 00:57:24.142

그걸 가지고 이제 논제로
삼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.

00:57:24.242 --> 00:57:26.960

마지막 지문 보겠습니다.

00:57:27.060 --> 00:57:29.482

해외 직구 안전성 재고에

대한 문제예요.

00:57:29.582 --> 00:57:33.469
보기 1을 활용해서 보기 2를 구체화하는
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57:33.569 --> 00:57:36.771
개요를 적절하게 고쳐
봐라, 이런 뜻입니다.

00:57:36.871 --> 00:57:39.577
보기 2에 정부 차원의 안전성
제고 방안이라는 항목을 추가할 때

00:57:39.677 --> 00:57:42.075
제시할 내용으로 적절하지
않은 걸 찾으라 그랬는데요.

00:57:42.175 --> 00:57:45.259
해외 직구란 외국의 오픈
마켓, 의류 브랜드 등의

00:57:45.359 --> 00:57:47.555
인터넷 사이트에서 제품을
구매하는 겁니다.

00:57:47.655 --> 00:57:48.837
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.

00:57:48.937 --> 00:57:51.064
불만도 있고, 피해를
경험하는 사람도 많아요.

00:57:51.164 --> 00:57:54.758
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해외
직접 배송에서는 하자 피해가

00:57:54.858 --> 00:57:56.138
상대적으로 많았어요.

00:57:56.238 --> 00:57:59.868
하자,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
배송받거나 이런 거겠죠.

00:57:59.968 --> 00:58:03.458
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피해가
많았으며 구매 대행에서는

00:58:03.558 --> 00:58:08.535
반품, 환불 지연 및 거부, 수수료
등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.

00:58:08.635 --> 00:58:11.810
해외 직구 결제 방법은
신용카드 이용한다고 응답했고,

00:58:11.910 --> 00:58:14.139
현금도 10.5%, 많죠?

00:58:14.239 --> 00:58:18.786
현금 결제 피해의 경우 신용카드

결제보다 사업자 연락 두절,

00:58:18.886 --> 00:58:20.208

사이트 폐쇄, 불안합니다.

00:58:20.308 --> 00:58:24.219

사기성 쇼핑몰에 의한 피해에
취약합니다, 현금인 경우에는.

00:58:24.319 --> 00:58:27.330

물품 수입의 현황을 보니까 점점
더 어떻게 된다는 얘기에요?

00:58:27.430 --> 00:58:28.444

많아진다는 거죠.

00:58:28.544 --> 00:58:30.114

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고.

00:58:30.214 --> 00:58:34.914

해외 직구 이유는 뭐냐면 저렴해서,
그다음에 국내에 없는 브랜드,

00:58:35.014 --> 00:58:36.485

그다음에 품질 좋아서.

00:58:36.585 --> 00:58:38.742

품질 좋다는 이유는 별로 없죠.

00:58:38.842 --> 00:58:41.195

그러니까 가장 많은 양을
확인하시면 됩니다.

00:58:41.295 --> 00:58:45.841

유형별 구매 비율은 직접 구매,
직접 제품 구매하고 국내로 전달하는

00:58:45.941 --> 00:58:47.288

이게 가장 많고요.

00:58:47.388 --> 00:58:53.270

배송 대행은 그다음이고 해외 구매
대행은 그다음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.

00:58:53.370 --> 00:58:54.191

됐습니까?

00:58:54.291 --> 00:58:58.289

그다음에 이런 점에서 좋아요라고
해서 직접 배송은 가격이 역시,

00:58:58.389 --> 00:59:00.173

가격 저렴하기 때문이고.

00:59:00.273 --> 00:59:02.969

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요.

00:59:03.069 --> 00:59:06.277

해외 배송 대행은 국내로
바로 배송되지 않는 제품도

00:59:06.377 --> 00:59:07.852

구입이 가능하다.

00:59:07.952 --> 00:59:11.881

그다음에 문제는 배송비
책정 비율이 서로 다르죠.

00:59:11.981 --> 00:59:16.250

그다음에 해외 구매 대행은 복잡한
해외 직구를 비교적 편리하게

00:59:16.350 --> 00:59:20.863

이용할 수 있고, 구제가 가능하다는
게 해외 구매 대행입니다.

00:59:20.963 --> 00:59:26.033

반품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
있다는 게 유의할 점이겠죠.

00:59:26.133 --> 00:59:30.437

그다음에 보기를 이렇게 한번
바꿔 봐라, 이런 건데.

00:59:30.537 --> 00:59:32.013

4번 문제를 볼게요.

00:59:32.113 --> 00:59:35.268

보기 1을 활용해서 보기 2를 구체화하는
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.

00:59:35.368 --> 00:59:37.383

㉠에서는, ㉠이 이거잖아요.

00:59:37.483 --> 00:59:40.471

머리말에서는 해외 직구의 개념을
설명한 (가)를 활용해서.

00:59:40.571 --> 00:59:42.503

개념이 설명된 게 (가)잖아요.

00:59:42.603 --> 00:59:44.551

화제를 제시하며 글을 시작해야겠다.

00:59:44.651 --> 00:59:46.706

당연히 처음 부분이니까 적절하겠죠.

00:59:46.806 --> 00:59:48.859

㉡에서는, ㉡이 뭐죠?

00:59:48.959 --> 00:59:51.725

㉡은 이점 및 현황이 나와 있어요.

00:59:51.825 --> 00:59:55.648

이점 및 현황이니까 나의
1, 2를 활용하여.

00:59:55.748 --> 00:59:59.874

1과 2니까 1은 점점 수입
현황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,

00:59:59.974 --> 01:00:01.792

그다음에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니까

01:00:01.892 --> 01:00:04.647

해외 직구가 증가 추세에
있음을 설명하고 있다.

01:00:04.747 --> 01:00:05.760

㉠도 적절하죠.

01:00:05.860 --> 01:00:07.795

유형별 피해 상황, ㉠ 볼까요?

01:00:07.895 --> 01:00:13.960

(가)와 (나)-3을 활용해서
유형들을 소개하고 있죠.

01:00:14.060 --> 01:00:16.766

유형들이 나와 있고,
유형별로 반발하는

01:00:16.866 --> 01:00:19.579

피해를 제시하고 있다라고
하면 이것도 역시

01:00:19.679 --> 01:00:21.862

피해 사례로 적절한
거잖아요, 그렇죠?

01:00:21.962 --> 01:00:24.183

결제 방법에 따른 피해
사례는 뭐가 나왔냐면

01:00:24.283 --> 01:00:26.521

아까 현금일 때 더
많다고 얘기했으니까.

01:00:26.621 --> 01:00:30.384

㉠에서는 (가)를 활용해서
신용카드 이용한 결제 방법보다

01:00:30.484 --> 01:00:33.295

현금 이용한 결제 방법의
피해가 큼을 지적하고 있다.

01:00:33.395 --> 01:00:34.727

㉠도 적절하죠.

01:00:34.827 --> 01:00:37.368

개인 차원의 안전성
제고가 무슨 뜻이에요?

01:00:37.468 --> 01:00:40.873

올린다 이런 뜻인데, 올릴
수 있는 방안입니다.

01:00:40.973 --> 01:00:44.359

㉠에서는 (가)와 (다)를
활용해서 인터넷 사이트의

01:00:44.459 --> 01:00:46.496

제품 판매 정책들을 살펴보고.

01:00:46.596 --> 01:00:48.677

정책에 대한 내용이
나오지는 않았죠.

01:00:48.777 --> 01:00:51.324

해외 직접 배송의 유형을
활용하면서 피해를 예방함을

01:00:51.424 --> 01:00:53.161

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.

01:00:53.261 --> 01:00:56.029

여기에서는 어떤 특정
유형이 더 안전하다,

01:00:56.129 --> 01:00:58.117

이런 것들을 알려주고
있는 내용은 없었어요.

01:00:58.217 --> 01:00:59.088

어디 나왔니?

01:00:59.188 --> 01:01:03.001

어떤 직접 배송 유형을 잘 활용한다,
어떤 것들이 더 안전하다,

01:01:03.101 --> 01:01:08.006

이런 내용이 보기 자료로 나오지
않았으니까 정답이 5번이 되겠죠.

01:01:08.106 --> 01:01:11.753

마지막, 보기 2에 정부 차원의
안전성 제고 방안이라는 항목을

01:01:11.853 --> 01:01:14.870

추가할 때 제시할 내용으로 적절하지
않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는데.

01:01:14.970 --> 01:01:18.181

비교 정보 제공을
해야겠죠, 정부에서.

01:01:18.281 --> 01:01:20.962

지침 마련이나 홍보를
하면 적절하잖아요.

01:01:21.062 --> 01:01:24.277

정부에서 이런 지침을 마련하거나
홍보하면 적절하겠고.

01:01:24.377 --> 01:01:26.042

소비자 피해 다발 사이트.

01:01:26.142 --> 01:01:29.519

많은 사이트 같은 경우는
모니터링에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

01:01:29.619 --> 01:01:31.640

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.

01:01:31.740 --> 01:01:36.051

그다음에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
물품에 대해서 면세 한도,

01:01:36.151 --> 01:01:40.003

이거는 면세, 얼마나 더 깎아주고,
깎아주지 않고 이런 거니까

01:01:40.103 --> 01:01:42.642

이거는 안전성의 문제와는
상관이 없는 거잖아요.

01:01:42.742 --> 01:01:44.474

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고요.

01:01:44.574 --> 01:01:48.449

협력 시스템 마련하는 것은
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을

01:01:48.549 --> 01:01:51.134

확보하는 방법이니까
이거는 적절하겠죠.

01:01:51.234 --> 01:01:53.912

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

01:01:54.012 --> 01:01:59.470

여러분, 여기까지 아주 긴 시간,
오랜 시간 각 영역에 대해서

01:01:59.570 --> 01:02:00.800

모두 마쳤습니다.

01:02:00.900 --> 01:02:02.577

마지막 강의가 상당히
좀 길었는데요.

01:02:02.677 --> 01:02:04.272

내용도 상당히 좀
많았기 때문입니다.

01:02:04.372 --> 01:02:09.279

문학, 비문학, 문법, 화작문, 어느
하나도 버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

01:02:09.379 --> 01:02:12.100

약한 부분 있으면 그 부분만
골라서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.

01:02:12.200 --> 01:02:16.028

이 책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
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

01:02:16.128 --> 01:02:19.402

그동안 고생 많으셨고, 또 다른
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, 여러분.

01:02:19.502 --> 01:02:21.238

여러분, 수고하셨습니다.